

'내재주의' 언어 철학에 대하여

김 지 흥

0. 글머리에
1. 몇 가지 개념들
2. 의미와 지시의 문제
3. 내재주의 노선에서의 탐구
4. 무한 퇴행과 언어 사용의 문제
5. 마무리하면서

0. 글 머리에

츨스키(N.Chomsky) 교수의 글을 통해 언어 철학에 대한 논쟁들을 읽어 가다 보면, 마치 조선조 학자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이·기(理氣)에 대한 논쟁(일원론/이원론)의 한가운데에 들어가 있다는 착각에 휩싸인다. 방대한 『성리 대전』속에 들어 있는 소옹(1011~1077)의 '황극 경세서'에서는, 우주를 지배하는 상수(象數) 원리에 따라서 구체적 인 소리로 구현되기까지의 그 도출 과정을 그림으로 그려 열개를 보여 준다. 우리 인간 정신이 자연이 만들어 준 결과이라면, 그리하여 자연의 이법(理法)이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몸과 마음을 전혀 다른 대상으로 여기고 각각 별개의 원리를 찾는 잘못된 '이원론'의 한계

관하게 존재한다는 생각이다. 줌스키(1993b)에서, 플라톤의 이성주의를 되살려낸 프레게(Frege, 1848~1925)의 생각을 비판하는 핵심 대목은, 프레게가 인식 주체로서 우리 인간이 완전히 배제된 실재론으로서의 '이성' 또는 '순수 사고'(pure thought)라는 개념을 가장 궁극적인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이다.³⁾ 곧, 인간 경험이 전혀 배제되어 있는 '순수 이성'은, 설사 그런 개념이 우주 속에 실제로 있다고 하더라도, 인식 주체로서 인간이 고유하게 유전적으로 물려받고 있는 인식 기관과 그 운용 방식에 의해 제한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이성'이라는 용어가 때로 인간이 완전히 배제된 실재론의 한 속성을 가리키게 되어 잘못 오해를 부를 수 있다. 이 때문에 줌스키 언어 철학에서는 더 이상 이 용어를 쓰지 않는다. 대신, 인간의 인지 기관의 본질과 그 운용 방식에 의존하여 세계를 지각하고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내재주의'(internalism)란

3) 프레게(1879), 『개념 문자 : 순수 사고를 위해 산술 체계에 바탕을 둔 한 형식 언어』에서는 혁명적으로 '사고의 기초'에 대하여 터를 다지고 있다. 즉, 고전 논리학의 주어와 술어라는 이원론적 접근을 버리고, 처음으로 '명제'를 일원론적으로 파악하여 '함수'와 '논항'으로 이뤄진다고 보았다. 뒤에 『프레게 유고집』(Long & White 번역 1979:253)에서는, 가장 궁극적인 개념으로서 모든 사고에 대하여 판단(judgment)이 상정되어야 한다고 여겨,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고 있다. 이는 진·위(眞僞)에 대한 인식(이를 '판단'으로 부름)이 모든 인식 활동의 모태(母胎)임을 전제로 한다. 그렇지만, 이런 판단 작용은 우리 정신 활동의 아주 특별한 구현 방식의 하나일 뿐이다. 오늘날 인지과학에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대상 및 대상들이 갖는 함수 관계에 대한 지각이나 인식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프레게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마땅히 제거되어야 할 심리학적 대상으로만 본 듯하다. 이런 대조점이 프레게의 '이성주의'와 줌스키의 '내재주의'를 구별해 준다. 그렇지만, 프레게(1884), 『산술에 대한 기초 : 자연수 개념에 대한 논리적·수리적 탐구』에서 밝혀낸(Austin 번역 1963:99,103), 분석적 판단 작용 및 자연 법칙들에 대한 상위 법칙으로서 자연수의 본질은, 후제자에 대한 계열(a series to its successor)이다. 이는 '반복' 함수(recursion, 귀납 또는 회귀 함수)로도 표현된다. 이는 '무한성'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프레게의 '함성성 원리'는 줌스키에게서 '이산성'(離散性: discreteness; 분절성, 비연속성)으로 언급되며, 잭킨돌(Jackendoff 2002)에서는 조합성(combinatorality)으로 부른다.

주의'에 대한 역사적 뿌리를 드러내는 데 힘을 쏟았지만, 50대와 60대에는 자신의 관점을 비판하는 유명한 영미 철학자들과 논쟁을 전개하면서, '내재주의' 관점이 정당함을 변호하고 있다. 특히, '경험주의' 철학자 콰인(Quine)·풀넴(Putnam)·데이비슨(Davidson)을 비롯하여, 더밋(Dummett)·루이스(Lewis) 등이, '내재주의' 언어 철학을 옹호하고 있는 촘스키 교수의 비판과 논박의 대상이다.

촘스키 교수의 언어 철학에 대한 글들에 대해서, 일련의 발전 과정에 대하여 통시적인 축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이와는 달리 공시적인 축으로 어느 시점의 주장을 다른 주장과 대립시키면서 접근할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뒤의 길을 택한다. 특히, 이 글에서는 그의 완숙한 60대의 생각들을 담고 있는 1990년대에 발표된 글을 중심으로 하여,²⁾ 그가 누구를 왜 논박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나가기로 한다.

1. 몇 가지 개념들

1-1. 이성주의와 내재주의

먼저 오늘날 언어 철학의 논의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몇 가지 개념들에 대하여 명백히 해 놓고서, 논쟁의 초점들에 대해 다루어 나가도록 한다. 한국분석철학회 편(1993), 『실재론과 관념론』(철학과 현실사)에서는, '실재론'이라는 용어가 인식 주체로서의 인간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세계가 실재한다는 전제에서 쓰이고 있다. 진리는 '인간의 인식과 무

2) 『언어와 정신 연구에서의 새로운 지평』에는 1992년에 발표된 「언어 사용에 대한 설명」 및 「언어와 해석」, 1994년에 발표된 「언어와 정신 연구에 있어서의 자연주의와 이원론」, 1995년에 발표된 「언어와 자연」, 1997년에 발표된 「언어 연구에서의 새로운 지평」, 2000년 현재 발간 중인 「내재주의자의 탐구」들이 실려 있다.

록 유보적이기는 하지만 논리화적인 접근 방식 속에 이 문제의 해결을 기대하는 것 같다.

의미론적 해석 단위로 제안된 개념은 특정한 유형의 고정된 자질 (혹은 의미론적 자질), 예를 들어 ‘생물’-‘무생물’, ‘상대적’-‘절대적’, ‘능력’-‘도구적’ 등으로 분석된다. 사람들은 암묵적으로 한 문장의 의미해석이 언어와는 독립적으로 보편적 원리에 의해, 문법적으로 서로 연결된(예를 들어 주어와 술어로) 발화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을 통해 결정된다는 점을 받아들인다. 비록 윌킨스와 같은 선구자들의 연구 속에서 수행상의 결합이 분명하지만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타당하다. 보편음성학은 우리가 지적인 방향에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현재 구성되었다. 그러나 상응하는 보편의미론은 매우 조금 연구되었을 뿐이다.(1967, 132).

비록 보편의미론이 거의 연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는 하지만 타당한 방법론이 제안되었다는 데에 촘스키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 같다. 타당한 방법론이란 “보편적 원리”를 따르는 방법론이다. 여기서 보편적 원리란 “생물-무생물, 상대적-절대적, 능력-도구적” 등 보편적 범주와 관련된다. 이러한 보편적 범주는 “개별 언어와는 독립적으로” 성립된 개념들이다. 이들은 구체적인 발화체 속에서 문법적인 관계, 다시 말해 주어와 술어 등의 논리화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우리는 여기서 촘스키가 구상하고 있는 의미론이 논리학—술어논리—에 기반을 둔 의미론임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 논리학적 의미론에서 의미는 곧 개념이고 이 개념은 보편적인 범주에 속한 개념이다. 보편적 범주에 속한 개념의 질서를 밝히는 것이 보편의미론의 주된 업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작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범주에 속한 개념들이 보편적으로 실재하는 개념이라야 한다. 한마디로 논리학적 의미론은 실재론을 표방한다. 예를 들어 “생물-무생물”, “상대적-절대적”, “능력-도구적” 등의 개념쌍이 보편적으로 실재한다고 상정한다. 이 자리에서 실재론이나

용어를 쓰고 있다. 이와 대립되는 개념이 '외재주의'이다. 이는 모든 것이 외부 세계의 실재에서 시작되고 끝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외부 세계가 인식의 인과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주인인 셈이다. 흔히 경험주의나 행태(행동)주의로 불리는 생각들은 물론, 철학에서 논의되는 '실재론'도 외재주의의 한 갈래이다.

1-2. 무한성의 열개

무한 또는 무한성이라는 개념을 비로소 학문의 대상으로 다룰 수 있게 된 것은, 자연수의 본질을 파악함으로써 그 속성을 다른 대상들에 적용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이다. 이를 모형으로 하는 개념 체계는 '생성 문법' 또는 '반복 문법'으로 불린다.⁴⁾ 임의의 대상 X가 주어지면, 그 대상이 반복될 수 있는 방식은 자신과 이웃하여 반복되거나($X[X]...$), 또는 자신의 내부에서 자신을 반복하는($[X...X]$) 두 가지 길밖에 없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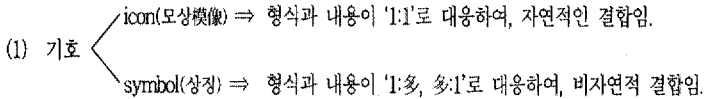
4) Tarsky(1983)『*Logic, Semantics, Metamathematics*』(Hackett Pub.)에 있는 편집자의 개관에서 "...a formal definition of the set of sentences of the objective language. Such a definition has become known as *a recursive grammar*, and, more recently, as *a generative grammar*"(p.xxi)라고 소개하고 있다. 'recursion'을 『수학 대사전』(한국사전연구원 1989:130 이하, 창원사 발간)에서는 귀납(歸納) 또는 귀납적 함수라는 말로 쓰고 있지만, 여기서는 쉽게 '반복'이라고 표현하기로 한다.

5) 자연수란 결국 엄격한 등위 접속 구조를 갖는 임의의 대상에 지나지 않으며, 반면에 허수는 내포 구조로 도출되는 대상이다. 소박한 생각으로는 자연수가 가장 기본적인 수 형태라고 보았지만, 그 구조가 밝혀짐으로써, 자연수란 반복 함수에다 부가 자질들이 다수 추가된 유표적인 수임이 드러나게 되었다. 다시 말하여, 허수의 집합이 무표적인 수가 된다(가장 넓은 동심원을 차지함). 촘스키 교수의 글에서 수(number)도 자연 언어보다 덜 궁극적이라는 지적을 볼 수 있는데, 아마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짐작된다. 자연 언어는 등위 접속·종속 접속·부가 접속이라는 용어들에서 알 수 있듯이, 접속 구조가 아주 많다. 반면에, 내포 구조를 갖는 경우는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 적다. 내포 구조를 이루는 핵어(head)는 통사론에서 '생각·믿음·희망·추측·인용'과 관련된 동사군뿐이며, 이들은 현대 철학에서 언급되는 '지향성(intensionality)'이라는 개념과 관련된 자질을 불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의미론에서는 내포문으로 실현된

앞의 방식은 '접속'에 의한 것이고, 뒤의 방식은 '내포'에 의한 것이다. 언어 요소를 묶는 뼈대가 핵 요소와 핵이 아닌 요소(핵어와 비핵어)로 이루어져 있다면, 반복의 대상은 핵 또는 핵이 아닌 요소 둘 모두가 되며, 그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구조를 갖게 된다.

1-3. 상징으로서의 언어

언어는 기호이다. 기호는 형식과 내용이라는 두 층위를 갖고 있다. 기호는 형식과 내용이 '1:1'로 결합되느냐, 또는 '1:다, 다:1'로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⁶⁾



동물의 의사소통은 형식과 내용이 '1:1'로 대응되며,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결합을 이룬다. 어떤 동물이 으르렁거리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는 '으르렁'이라는 소리 형식을 갖는다. 그런데 이 형식이 가리키는 내용은 고정되어 있다. 그 동물이 마주하고 있는 상대에 대한 협박이나 경고일 뿐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뒷산에 연기가 피어오른다고 해 보자. 이는 시각적인 형식이다. 이 형식은 자연스럽게 뒷산에 불이 났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형식과 내용이 일관

명제에 대한 어떤 태도를 나타낸다고 하여, '명제 태도'(propositional attitude) 동사로 부르기도 한다.

6) 형식과 내용의 결합 관계가 자연적임(naturalness)·비자연적임(nonnaturalness)이라는 표현은 그라이스(Grice 1988)에서 빌려온 것이다. 재래의 방식을 따르면, 필연적·자의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되게 하나의 결합 관계(1:1)를 유지한다.

그렇지만 인간의 의사소통을 살펴보자. 인간이 어떤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내지르는 비명과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식과 내용이 '1:1'로 대응하는 사례는 거의 찾을 수 없다.

(2가) 철수는 컴퓨터이다.

나) 컴퓨터는 컴퓨터이다.

(2)에서 우리는 동일한 형식을 찾을 수 있다('컴퓨터이다'). 그런데 이 형식이 같은 내용을 가리키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우리말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2가)에서 쓰인 형식과 (2나)에서 쓰인 형식이 같은 내용을 갖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앞의 형식이 컴퓨터라는 대상의 긍정적인 속성을 부여하고 있다면(컴퓨터처럼 정확하다), 뒤의 형식은 상황에 따라 부정적인 속성을 지나는 것이다(인간다운 감정이나 따스함이 없다).

(3가) 영수가 자전거를 타고 대학에 간다.

나) 영수가 이번에 대학에 간다.

(3)에서도 동일한 형식을 찾을 수 있다('대학에 가다'). 그러나 (3가)에서 드러내는 내용과 (3나)에서 드러내는 내용은 같지 않다. (3가)는 두 지점 사이의 이동이라는 1회적인 현실 사건(즉, 행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3나)는 상급 학교에 진학한다는 비유적인 내용으로 확대되어 쓰이고 있다.

이런 사례들은 어휘 그 자체의 중의성(또는 다의성)을 드러내고 있다. 형식과 내용의 결합이 '1:多'라는 점은 언어가 불가피하게 상징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반드시 적절히 '해석되어야만' 할 대상임을 말해 주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 동일한 구절에서도 이런 의미 차이들이 쉽게 관찰된다.

(4가) 송이 사진 ⇒ 송이가 갖고 있는 사진으로 송이는 소유주임.

나) 송이 사진 ⇒ 송이가 찍힌 사진으로 송이는 피사체임.

(4)에는 동일한 어휘가 쓰이고 있다. 그렇지만, 서로 다른 (4가)의 해석과 (4나)의 해석이 가능하다(앞의 것은 지칭어 논항이고, 뒤의 것은 보충어 논항이다. 편의상, 부가어 구조를 갖는 해석은 일단 보류한다). 더 간단한 단어 내부의 구조에서도 다양한 내용이 관찰된다.

(5가) 책장, 옷장 ⇒ 장과 그 속에 들어갈 대상물과의 관계를 나타냄(대상물과 용기).

나) 서랍장 ⇒ 장을 구성하는 갈래를 나타내며, 대상물과의 관계를 나타내지 못함.

(6가) 바위고개, 눈물고개 ⇒ 고개라는 배경과 초점으로서의 대상물을 나타냄.

나) 보리고개 ⇒ 배경으로서의 고개와 초점으로서의 대상물의 부재를 나타냄.

(5)와 (6)은 복합어들이다. (5가)와 (6가)에서 핵어와 비 핵어의 관계는, 대상물이 더 추가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렇지만 (5나)와 (6나)에서는 대상물의 결여 또는 대상물이 비어 있음을 나타낸다. 가장 간단한 단어 내부에서조차, 동일한 형식에 대해 내용이 서로 반대되는 관계를 관찰할 수 있다.

동일한 내용이면서 여러 가지 형식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쉽게 찾아진다(多:1의 관계). 누군가가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을 꼬집었다고 하자. 그 사람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을 언어로 표현하면 매우 다양하다. “아야야야!”에서부터 “왜 꼬집어?”나 “내게 유감이 있어?”, 또는 “시원하게 더 세계 꼬집어 그래?”나 “더 세계 꼬집어 즐래?”처럼 반응하거나, 침묵 반

응과 함께 직접 몸으로 응징하는 행위를 하는 것까지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반응은 자유 의지를 가진 주체로부터 나오는 것이므로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다. '꼬집혀서 아프다'라는 뜻을 공유하면서도, 이 뜻이 사뭇 다양한 언어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흔히 문학에서 다루는 주제는 크게 '사랑·권력·미움·늬움·소의·죽음' 등 몇 부류의 동일한 내용들이지만, 그 주제를 구현시키는 방식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실로 다양하다. 이런 측면도 하나의 내용에 여러 형식이 대응하는 경우로 간주할 수 있다.

만일 언어의 중의적 측면(동일한 형식에 여러 의미가 깃들거나, 동일한 내용에 여러 형식들이 대응함)은 언어가 상징이라는 속성을 보다 선명히 드러내고 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여 그런 중의성이 의사소통에 지장을 일으키지 않고 해소될 수 있는 것일까? 더 일반화하여, 다음처럼 질문할 수 있다. 언어가 상징이라면, 어떻게 해서 상징에 대한 해석이 서로 어긋남이 없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일까??) 이 물음은 가장 초보적

7) 문학 작품에 대한 해석의 문제도 상징 해석의 문제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형식에 대한 내용을 찾아낸다는 점에서는 이 진술이 옳다. 그러나 더 정확히 표현하면, 문학 작품의 해석은 단순히 상징 해석의 물음을 넘어서서, 다른 차원의 물음이 밑바닥에 도사려 있다. 문학 작품은 형식들의 연결체이다. 곧, 상징 형식이 이산성(discreteness: 조합성·분절성·비연속성)을 지니는데, 이 이산적 속성을 갖는 형식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 그 이어지는 방식(즉, 담화 또는 텍스트 연결 방식)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연결 방식을 뒷받침하는 공유된 삶의 체험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과 관련된다. 비록 같은 용어를 쓰고 있지만, 문학 작품 해석과 관련된 물음은,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물음이 된다. 이산성은 진화의 역사에서 우리 인간이 선택한 가장 값싼 술기(cheap trick)이었다고 한다(케킨들 2002:308). 그러나 그런 선택을 함으로써, 다른 쪽에서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즉, 이산적인 형식들이 길게 이어질 때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연결들을 제대로 해석해야 하는 짐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 점을 '연산의 편이성'과 '해석의 수월성' 사이에 존재하는 '반비례 관계'라고 표현할 수 있을 듯하다. 한편, 소리의 분절성이 구조적으로 성대 하강의 결과이듯이, 정신의 이산성(離散性)은 구조적(또는 본질적)으로는 뉴런 연결이 시냅스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

인 것이지만, 아직 언어학계에서 진지하게 제기되고 해답이 본격적으로 제시되어 보지 않은 것으로 안다. 아마, 그 해답은 직관적으로 '감정 이입'(empathy)이나 '추체험'(윤명로 1987:331)이라는 개념의 언저리에서 찾아져야 하지 않을까 한다.

언어 그 자체의 하위 부서를 음운·형태·단어·통사·의미·화용들로 나눌 때, 앞쪽에 있는 것들은 언어 형식에 관련된 부서들이고, 뒤에 있는 것들은 언어 내용에 관련된 부서들이다. 그 경계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는 언어학자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다. 쉼스키 교수는 마지막 화용 부서만을 남기고서, 모두 연산 체제로 간주한다.⁸⁾ 쉼스키 교수는 화용 부서가 언어 사용과 관련된 부서로서 현재로서는 '신비의 문제'이며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 관점은 그라이스(Grice)의 생각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 길림길은 괴델(Gödel)의 '불완전성 정리'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따라 나뉘는 것으로 보인다.

1.4. 방법론에서의 선택 : 통합주의

언어는 우리 인간 생활의 핵심이 되는 도구이므로, 많은 분야에서 언어와 언어의 본질에 대하여 많은 사색과 논의가 이어져 왔다. 몇 사례로 가장 두드러진 분야를 든다면 다음과 같다. 현대 철학에서 언어 분석이 근본적인 논제로 자리잡고 있다. 심리학에서는 언어 처리 및 산출 과정에 대한 논제가 뚜렷한 한 갈래를 이룬다. 인지 과학에서는 언어가

에서 그 정체가 찾아져야 할 것이다.

8) 극단적으로 두 개의 상호접합면 층위만 상정한다. 하나는 소리를 만들어 내는 근육 운동의 지시 내용을 담은 층위이고, 다른 하나는 사고나 의도적 행위와 관련된 지시 내용을 담은 층위이다. 앞의 층위는 전형적으로 말소리를 통해 나오으로써, 밝혀지지 않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뒤의 층위는 우리의 현재 지식 정도만을 가지고서는 알 수 없는, '신비' 속에 들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우리의 인지 과정의 기초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인공 지능에서는 자연 언어 처리 또는 언어 공학이 인간 지능 구성에 하위 부서로 간주되고, 그 프로그램 구현에 몰두하고 있다. 사회학에서는 인간들이 관계를 맺는 데에 언어를 매개로 하는데, 그 언어 행위들을 놓고서 논의가 이뤄져 왔다. 전통적으로 문학에서는, 언어를 도구로 한 형상화 작업이 핵심 논제로 다루어져 왔다.

한 대상을 놓고서 이미 어떤 논의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어 왔을 때, 그 논의 결과들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전부 배척하거나, 또는 일부를 수정하면서 발전되어 나갈 수 있다. 이 과정에서는 그 대상을 다루는 밑바닥의 전제가 동일할 경우가 있고, 밑바닥의 전제가 다를 수도 있다. 이 점을 언어에 맞추어 생각해 보기로 한다. 언어를 다루는 논의들에서는 언어라는 대상이 다른 것으로 바뀔 수 없는 궁극적인 대상이라고 가정하기도 하고, 또는 언어라는 대상은 중간 매개물이며 더욱 궁극적인 단위로 바뀌어야 한다고 가정하기도 한다. 이는 인간 정신이 그 자체로 고유한 대상인지, 아니면 물질적 기반으로 바뀌어야 하는지, 또는 두 실체가 모두 다 필요한 것인지 하는 물음과도 관련된다. 이를 전통적으로 '몸과 마음'의 문제라고 불러 왔다. 만일 언어와 정신이 고유한 대상이라면, 불가피하게 몸과 마음이 서로 다른 대상이라고 가정해야 한다. 이를 심신 이원론이라고 부른다. 그렇지만, 언어와 정신이 우리의 몸과 마찬가지로 어떤 물질적 기반을 갖고 있고, 그런 물질 상태로 바뀌거나 환원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가능하다. 이를 환원적 일원론 또는 환원주의적 유물론이라고 부른다. 환원주의(reduction)에서는 언어와 정신이 우리 두뇌 속에 있는 신경 연결 그물들이나 '시냅스'라고 불리는 그물의 접점들 사이에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실체인 단백질 덩어리로 구명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심신 이원론과 환원적 일원론이라는 두 극단적 방법론 사이에서도 다른 선택이 가능하다. 하나는, 임의의 방법론에서 다루는 대상이 참된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그 대상을 다루는 논의도 무효임을 증명하는 방법인데, 이를 제거주의(elimination)라고 부른다. 제거주의는 결과적으로 환원주의와 같은 결과를 낳는다. 다른 하나는, 심신 이원론에서 이들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 긴밀히 연결되고 의존되어야 하는 관계라고 보는 것이다. 이를 심신 수반론(epiphenomenon)이라고 부른다. 이 방법론에서는 컴퓨터의 딱딱한 하드웨어와 컴퓨터를 구동시키는 소프트웨어의 비유가 자주 이용된다. 마지막으로, 수반론과 비슷하지만 다른 접근 방식이 있다. 몸과 마음이라는 두 대상이 동일하게 1:1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신경 생리적인 물질 기반이 어떤 임계치를 넘을 때에라야 비로소 정신 작용이 생겨난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 정신 발현론(emergence)라고 부른다.

촘스키 교수의 글에서는 제거주의·환원주의·통합주의라는 세 가지 용어가 쓰인다. 만일 제거주의의 대상이 정신일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제거주의와 환원주의가 같은 상태로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들이 하나의 공통 기반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두 대상은 서로 긴밀히 관련되어 정신 작용을 이뤄내는 것이라면, 통합주의(unification)를 택하게 된다. 이 통합주의 방법론이 촘스키 교수가 추구하는 노선이다. 그렇지만 통합주의의 속내를 분명하게 언급한 대목은 찾아지지 않는다. 다만, 화학의 대상과 물리의 대상이 서로 다르지만, 양자 물리학의 이론이 등장함으로써 환원됨이 없이도 이 두 분야가 모순 없이 서로 통합되어 있는 경우를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할 뿐이다. 따라서 촘스키 교수의 통합주의가 수반론적인 배경을 갖는지, 아니면 발현론적인 배경을 갖는지, 또는 제 3의 모습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 수 없다. 통합주의는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미래의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합주의라는 용어는 정신 작용과 물질 작용에 모두 함께 적용될 수 있는, 아직 정체를 알 수 없는 새로운 이론이 필요하다는 주장 정도로 이해될 법하다.

2. 의미와 지시의 문제

2-1. 의미 논의와 그 갈래

언어를 다룰 적에, '의미'라는 용어처럼 다양하게 쓰이는 예도 찾기도 힘들다. 형태소의 기능을 가리키는 용법에서부터 시작하여, 단어의 개념, 지시 대상물, 한 문장의 가리키는 사건, 한 문장의 참값, 상황 맥락, 언어 표현물 전체의 유기적 관련성, 언어 사용 등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다. 이런 의미 용법의 폭발을 막기 위하여, 언어학에서 의미라는 용어를 다룰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변수들을 고려하면서 그 범위를 제한하여 다루는 것이 관례이다. 첫째, 의미는 언어 표현 그 자체의 속성과 그 내부의 관계를 다룬다. 이는 어휘 의미론과 문장 의미론으로 나뉜다. 둘째, 의미는 언어 표현과 실세계에 있는 대상이나 사건과의 관련성을 다룬다. 이는 지시 의미론 또는 진리치 의미론이라고 불린다. 셋째, 의미는 언어 표현과 언어 산출자와의 관련을 다룬다. 이는 화용 의미론 또는 담화 의미론이라고 불린다.⁹⁾

9) 담화 이론 또는 텍스트 이론으로 연구되고 있는 주제들은 언어 사용자의 의도에 의해서 유기적인 질서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화용 의미론과 연속된 띠를 이루고 있다. 담화나 텍스트를 엮어 주는 통사 결속(cohesion)과 의미 연결(coherence)들은 화용론에서 다루어지는 관련성(relevance; Sperber & Wilson(1986)와 김태욱·이현호 번역(1993)에서는 이를 '적합성'으로 부름)과 대응되는 개념으로 파악될 수 있다고 본다. 블랙모어(Blakemore 2001, "Discourse and Relevance Theory", in Schiffrin et al eds.)에서는 앞의 개념들은 세계 대상들 사이에서 찾아지는 외재적 대상이고, 뒤의 개념은 내재적 대상이라고 논의하고 있다. 즉, 하나로부터 도출되거나 부산물로 간주될 수 없는, 서로 양립되어야 할 대상들

위에서 언급된 세 종류의 의미론 가운데 어휘 의미론의 한 갈래에서는, 특히 개념 형성과 관련하여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집중적으로 다루어 왔다. 특히, 로슈(Rosch)의 원형성 개념과 관련하여 원형적 경험 이 개념을 짚어내는 거꾸집인지,¹⁰⁾ 아니면 선천적인 개념 형성기가 머리 속에 들어 있어 그것으로부터 개념이 발현되는 것인지(이를 '고전적 개념' 이론이라고 부름)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 지금까지 이뤄진 언어 습득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선천적인 개념 형성 기관이 유전 인자의 발현에 의해 균질적으로 기본 개념들을 만듦을 알려 준다. 예를 들면, 처음부터 눈이 멀어서 시각 경험이 전혀 축적되지 않은 어린이라고 하더라도, 영어에서 정적인 'see'와 동적인 'look'의 차이를 구분하는 데,¹¹⁾ 이런 사실이 내재주의를 옹호하는 증거로 채택된다. 최근 어휘 의

이다. 설령, 그의 결론을 옳다고 수용하더라도, 내재주의 관점에서는 우리의 감각 및 지각 기관을 통해 파악하는 외재적 실체가 우리 머리 속의 특정한 단원체(module)에서 재구성될 수밖에 없고, 이 '재구성된 내용'과 '언어 형태로 표상된 내용' 사이에 일정한 대응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이 글에서 다루지는 않지만, 의미를 형식에 가치를 부여하는 '지향성(intentionality) 행위'로 파악하는 경우도 있다. 서얼(Searle)이 대표적이다. 지향성의 논리적 형식은 "X counts Y in context C"(상황 C에서 X가 Y로 간주된다)로 제시되는데, X가 언어 형식(발화)이며, Y가 실세계(또는 실세계 관련) 내용이며, C가 발화가 적합해지는 조건을 가리킨다. 언어 형식이 가질 수 있는 수행(행위) 개념은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주장, 행위 지시, 공약, 감정 표현, 실세계의 변화 선포). 이 개념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힘으로 더 확대되어 작용한다. 이는 언어 행위의 기능적 측면으로 부를 수 있을 듯하다.

- 10) 로슈(Rosch 1988)에서는 원형성과 관련된 논의와 쟁점을 회고하면서, 원형성이 심리적 표상 범주를 만들어내는 거꾸집으로 보았던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여, 수행에만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Margolis and Laurence(1999)에서 '개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들을 읽을 수 있다.
- 11) 이들은 의도가 있고 없음에 따라(±intention) 구분되는데, 이 자질에 따라 구분되는 자연부류들이 'hear : listen, follow : chase' 등과 같이 다수 존재한다(줌스키 2000b:170 이하). 어휘 개념을 분화시켜 나가는 데에 통사 정보가 관련되는지, 아니면 의미 정보가 관련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일치되어 있지 않다. 글라이먼(Gleitman 1990; Bloom ed. 1994 『Language Acquisition : Core Readings』 MIT Press 채수록)이 앞의 입장을

미론의 또 다른 갈래에서는 어휘들 속에 녹아 있는 개념 원소들을 찾아내고 있다. 쉐킨토프(Jackendoff 1990) · 러빈 외(Levin and Rappaport 1995) · 푸슬웁스키(Pustejovsky 1995) · 텔미(Talmy 2000) 등이 개별적인 하위 흐름의 대표적인 업적들이다. 이들에서는 모두 공통적으로 어휘들이 제멋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질서 아래 정연하게 조직되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¹²⁾

대표하고 있고, 할키(Finker 1994; Gleitman and Landau eds. 1994 『*The Acquisition of the Lexicon*』 MIT press 계수록)가 뒤의 입장을 대표한다. 이들은 각각 '통사로써 스스로 터득하기'(syntactic bootstrapping)와 '의미로써 스스로 터득하기'(semantic bootstrapping)라는 이름으로 일컬어진다.

- 12) 더 자세한 내용은 김지홍(1999)를 참고하기 바란다. 쉐킨토프(1990)에 따라 우리 국어의 어휘를 다룬 논의는 양정석, 『국어 동사의 의미 분석과 연결 이론』(박이정, 1995)을 참고하기 바란다. 러빈 외(1995)의 글들은 다수 그녀의 웹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http://www.csli.stanford.edu/~beth>). 어휘 의미 구조에 대한 논의에서 까다로운 기호들을 전혀 쓰지 않고 있으므로, 제일 쉽게 그리고 감동적으로 읽을 수 있는 내용들이며, 대학원 강의에 쓰기에 안정맞춤이다. 푸슬웁스키(1995)의 논의는 HPSG(핵어 중심 구조 문법)에서 직접 이용되고 있는 내용들이므로, 우리말로 된 핵어 중심 구조 문법의 논의들을 참고할 수 있다. 텔미(2000)에서는 그 동안 자신이 쓴 글들을 다 모아 놓은 것이다. 한국 인지언어학회 학술지에서 그의 생각이 적용된 글들을 접할 수 있다. 한국어를 대상으로 심도 있게 논의가 진행된 대표적인 주제로서, '이동 동사'에 대한 어휘화 유형이 있다. 연대별로 최순자·Bowerman(1991) "Learning to Express Motion Events in English and Korean—The Influence of Language-specific Lexicalization Pattern", in 『*Cognition*』41, Wienold(1995) "Lexical and Conceptual Structures in Expressions for Movement and Space", in Egli et al eds.(1995) 『*Lexical Knowledge in the Organization of Language*』(John Benjamins), 김영주(1997) "Verb Lexicalization Patterns in Korean and Some Issues of Language Acquisition", 『어학 연구』 31-3 등이 있다. 텔미의 '힘의 역학(Force Dynamics)이란 개념도 사역 구조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드러내는 공손 표현까지 설명하는 보편적인 열개이며, 그의 글에서 많은 점을 배울 수 있다. 한국어의 어휘 의미 연구에서, 얼굴을 비취 보는 '맑은 거울(清鑑)처럼 자주 참고해야 할 업적이 있다. 임홍빈 1993 『뉘앙스 풀이를 곁한 우리말 사전』(아카데미 하우스), 홍계성 외 9인 1997 『현대 한국어 동사 구문 사전(기초편)』(두산 동아)들이다. 이들은 Levin(1993), 『*English Verb Classes and Alternations—A Preliminary Investigation*』(Chicago UP)에 필적할 만큼 중요한 공헌들로 판단된다.

2-2. 지시의 문제

세 번째 의미론은 뒤에 있는 언어 사용의 문제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두 번째 의미론에 대하여 다루어 나가기로 한다. 지시 이론은 한 명사가 실세계에서의 어떤 대상을 가리킨다는 아주 소박한 생각으로부터 나왔다. ‘사과’라는 낱말이 실세계에 있는 어떤 대상을 가리킨다는 것에 이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를 근거로 하여, 실세계에 있는 어떤 대상이 우리 머릿속에 임의의 낱말을 만들어 낸다고 말할 수 있다. 이를 ‘외재적 실재론’에 바탕을 둔 지시 의미 이론이라고 부른다. 그렇지만, ‘여의주’는 어떠한가? 가공의 대상으로, 실세계에서는 전혀 찾을 길이 없다. 더 극적으로 제시하는 사례가 ‘둥근 사각형’이다. 도대체 둥근 사각형이 모든 가능 세계(all possible world, if any)를 뒤지고 뒤져 본들 찾을 수가 있을까? 이를 억지스런 낱말로 치부한다면, 우리말에서 ‘산 송장’은 어떠한가? 시체라는 대상은 죽어 있을 뿐이지, 죽은 속성과 대립되는 요소가 어떻게 해서 덧없힐 수 있는 것일까? 실세계에서 지시될 수 있는 대상을 찾을 수 없는 이런 경우를, 다만 비유적 표현으로 쓰이는 예외로 간주함으로써, 임의의 낱말은 실세계에 있는 임의의 대상을 가리킨다고 진술할 수 있을까?

문제가 간단치 않다. 촘스키 교수가 자주 드는 사례가 ‘London’이다 (촘스키 2000b:127, 191, 여기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 ‘런던’을 ‘진주’로 바꿈). 필자가 살고 있는 ‘진주’는 한국 동란(6·25) 때에 폭격으로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다. 동란이 끝나자 다시 완전히 새롭게 재건되었다. 동란 이전에 있던 집이나 자연물들과 동란이 끝난 뒤에 재건된 대상물들 사이에는 같은 것이라곤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란 이전에 있던 인공물과 자연물에도 ‘진주’라는 낱말로써 그것들을 가리키고 있었고, 동란 뒤에 재건된 인공물과 자연물에도 여전히 똑같은 낱말을 쓰고 있

는 것이다. 실세계의 대상은 전혀 다르다. 그렇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는 동일한 낱말을 쓰며 동일한 대상이라고 생각한다.¹³⁾

강물의 경우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인도에 있는 '갠지스 강'이 어느 우기 때에 크게 범람을 하여 완전히 물길을 바꾸었다. 처음에는 북에서 남쪽으로 흐르다가, 범람 뒤에는 북에서 동으로 흐르게 되었다. 새로운 강의 물길은 이전에 있던 지역이나 지점과는 전혀 겹치지 않는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갠지스' 강이라고 부르고 있고, 앞으로도 어떤 곳을 어떻게 흐르든지 상관 없이 그 이름으로 불릴 것이다. 어느 특정

13) 촘스키 교수가 자주 거론하는 반대의 사례가 있다. 동일한 대상물에 다른 이름을 붙이는 경우이다. 가령, 작은 녹차 주머니를 내가 들고 있는 뜨거운 물컵 안에 담았다고 해 보자. 물컵 안에 있는 물은 더 이상 '물'이 아니다. '차'라고 불리게 된다. 그런데, 커다란 수조 안에 녹차 부대를 풀어 넣었다고 해 보자. 그 수조의 수도꼭지를 통해, 내가 컵에 물을 받는다. 이 때 그 대상의 물질적 구성이 앞의 물컵에서와 똑같이 차 성분만 들어 있으므로, 물질 구성으로만 보면 '차'라고 부를 만하다. 그렇지만, 우리는 수도꼭지로부터 컵에 '물을 받았다'고 말을 할 뿐이다. 컵에 '차를 받았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비록 물질 구성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한 경우는 '차'라고 불리고, 다른 경우는 그냥 '물'이라고 불린다. 필자의 경험에서 실제 사례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필자의 연구실은 20년 넘은 낡은 건물에 있다. 화장실 세면대에서 아침 일찍 물을 받으면, 수도관이 낡았기 때문에 붉은 쇳물이 한참 나오고 난 뒤에야 비로소 맑은 물이 나온다. 이 때, 필자는 물질 구성 상 붉은 녹이 섞인 물을 세면대에 받았지만, 결코 '쇠의 녹물'을 받은 것이 아니다. 오직 세면대에서 그냥 '물'을 받았을 뿐이다. 쇠의 녹이 '우연히' 물에 섞여 들어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원래부터 세면대에는 그냥 물이 나오도록 꾸며져 있고, 그렇게 기능할 것이라는 믿음을 내가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다. 붉은 녹물이 들어 갔다는 사실을 옆사람에게 말할 때에도, '우연히 불순물로써' 물에 붉은 녹물이 '섞여 들어갔다'고만 말할 것이다. 결코 '붉은 녹물을 받기 위해' 수도꼭지를 틀었다고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예를 들어 놓은 까닭은 필자의 짐작에 그 의도가 다음과 같다. '지시체'에 대한 논의에서 러셀은 한 대상이 여러 가지 속성을 다발로 갖고 있는 기술구(cluster of descriptions) 모형을 제안한 바 있다. 촘스키 교수는 설명 지시체가 여러 속성을 갖더라도, 하나의 속성이 우선적으로(소위 default 값으로) 고정되어 있음을 보이기 위해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인 듯하다. '이스탄불' : 콘스탄티노플(또는 우리 나라의 '한양 : 서울)의 사례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더라도 같은 도시를 가리킨다.

지점을 흐르는 물길을 갠지스 강이라고 한다면, 외재적 실재론 입장에서 실세계의 대상이 낱말을 만들어 낸다는 가정 아래에서, 범람 이후에 다른 지점을 흐르는 물길은 다른 이름을 가져야 옳다. 그러나 우리의 언어 생활은 전혀 그렇지 않다. 똑같이 '갠지스 강'인 것이다. 이런 사례들은 실세계에 있는 대상물이 관련은 있겠지만,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없음을 드러낸다.

좀더 극적인 예가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뜬다'는 표현이다. 과거 좁은 세계 지식을 뛰어넘어, 오늘날 우리는 누구나 지구가 자전하면서 해를 돌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 실세계에 대한 지식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렇지만, 그 실세계의 실체에 부합되는 말을 새롭게 만들어서 "지구 자전에 의해 해가 비로소 눈에 들어온다!"라고 말할 사람도 없다. 오히려 이와 같이 실체에 부합되는 표현은 의사소통을 방해하고 지장만을 가져다 줄 뿐이다.

이런 난점은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춤스키 교수의 글에서는 문제가 정작 제시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해결책은 제대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퀘킨툼(2002:ch.10)에서 주장하는 논의를 따르면, 최소한 세 가지 요인이 있어야 한다. 첫째, 경험을 할 수 있는 실세계가 있고, 둘째, 우리의 감각/지각 수용기에서 받아들여 머릿속에 표상을 만들어 놓은 모형 세계가 있으며, 셋째, 다시 이 모형 세계와 관련될 수 있는 언어 단원체(module)가 있다. 세 가지 요인들이 서로 다른 원으로 표시된다면, 이 원들이 많은 부분 또는 적은 부분으로 서로 겹치거나 서로 떨어져 있는 관계를 상정할 수 있다. 세 원들이 서로 차이가 진 부분들은, 우리가 반성적 사고를 함으로써 보정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이렇게 차이를 고쳐 나가는 과정이 '해석 과정' 또는 '해결 과정'이라고 불릴 수도 있다).

그렇다면, '둥근 사각형'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만일 유리처럼 투명한 구 안에 색깔이 있는 정육면체를 집어 넣고서 구슬을 만들었다고 하자(또는 거꾸로 투명한 정육면체 안에 색깔 있는 구슬을 넣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나, 여기서는 사각형을 중심으로 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어떤 특정한 각도에서 이 대상을 바라보면, 밖에는 원이 보이고 그 안에 네모진 사각형이 보일 것이다. ㉠. 이런 대상을 공장에서 주물을 이용하여 우리가 만들었다고 하면, 엉뚱해 보이는 이 낱말로써 그 대상을 가리키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여, 머릿속에 표상되어 있는 세계 모형을 이용하여 실세계에서 어떤 대상을 창조해 낼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직접 받아들이는 감각/지각 경험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유로운 인간 정신의 구현인 것이다. 새로운 실세계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해가 뜬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모순 없이 은하계 끝점에서 지구와 해를 내려다 보면,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태양을 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믿는다. 다만 우리가 땅 위에 붙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지각 환경이 멀리 떨어진 대상의 운동을 상하 방향의 움직임으로만 파악하고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하여, 태양이 뜬다고 말을 하면서도, 모순 없이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추론해 낼 수 있는 것이다. '진주'나 '젠지스' 강은 설령 실세계의 대상물의 바뀌었다고 해도(지시물이 달라졌어도), 우리 머릿속 세계 표상 모형에 들어 있는 이 낱말들이 갖고 있던 관계는 임의의 사건 이전이나 이후에 동일한 것이다.¹⁴⁾

14) 이 해결책은 문화인류학자들이 원시 문화에서의 분류학 연구 성과와도 정합적으로 일치한다. 그들의 관찰에 따르면, 우리 인간들의 문화에서는 자신이 경험하는 세계 대상물을 5개에서 6개 층위로 분류한다. 가장 기본이 되는 층위를 갈래 층위(generic level) 또는 기본 층위라고 부른다. 갈래 층위는 각각 아래와 위로 두 층위 정도를 더 구성해 놓게 된다. 아래로는 각각 하위 갈래 층위와 변종(variant) 층위이다. 위로는 상위 갈래 층위와 포괄 층위이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경험을 통해 '감각/지각'을 하는 층위는 구체적 대상물들로 이루어진 변종 층위이다. 이 구체적이고 일화적인 경험을

2-3. 개버가이 사슬

괴델의 명제를 응용하여, '번역 불확정성'의 명제를 주장한 콰인의 대표적인 예가 '개버가이'(gavagai) 논쟁이다. 현지 조사를 나간 어떤 언어학자가 원주민과 함께 숲을 가고 있었다. 갑자기 토끼처럼 생긴 동물이 수풀에서 뛰어나왔다. 그 원주민은 순간 "개버가이!"라고 소리쳤다. 언어학자는 그 소리가 토끼처럼 생긴 동물의 색깔을 가리키는지, 귀가 쫓긋 솟아 있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그 동물이 달리기를 잘한다는 점을 가리키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콰인은 객관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 즉, 그 대상의 단편적 속성들을 고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대답한다. 번역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¹⁵⁾ 이

통하여, '동시에' 하위 갈래 총위와 기본이 되는 갈래 총위를 고정시키게 된다. 갈래 총위에서 위로 통합해 나가는 방식은 문화와 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이름이 부여된다. 이 총위에서 특징적인 것은, 언어 형태가 갈래(또는 기본) 총위에 있는 것이 제일 간단하다는 점이다. 하위 갈래 총위의 언어 형태는 흔히 갈래 총위를 놓고 추가 자질을 덧붙여 놓은 모습으로 되어 있다. 변종 총위는 우리가 실세계에서 경험하는 구체적 대상물에 대한 이름이 된다. 따라서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듯이, 때로 '고유명사'로써 불려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보면, 갈래(또는 기본) 총위에 '개'라는 단어가 있다. 하위 갈래 총위에서는 '진돗개, 삼살개, 사냥개,...' 등의 하위 갈래 어휘들이 나타난다. 다시 변종 총위에서는 '우리 집에서 기르는 귀가 삐죽 솟고 하얀 진돗개 슬기,' '어제 핑을 잡은 이웃집에서 기르는 갈색 긴 털 삼살개 워리' 등과 같이 구체적인 경험의 대상이 되는 '경험 자극 총체'이다. 다시 갈래 총위 위로 살펴보면, 개는 'canine(송곳니를 가진 개 파)이나 '가축'으로 상위 갈래 총위를 설정할 수 있고, 포괄 총위에는 동물이나 생물 또는 피조물로 언급될 수 있다. 여기서 필자가 강조하려는 핵심 사항은, 구체적인 경험을 주는 변종 총위와 한 대상물을 '추상적으로 갈래지어 나누는' 갈래 총위가 동시에 구현된다는 점이다(generic은 種이나 屬보다는, 대상을 갈래로 나누므로 '갈래'라고 번역되는 게 좋을 듯함). 이는 경험 자극물로서의 실세계와 우리 머릿속에 표상되어 있는 모형 세계와의 관계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이다.

15) 필자는 이런 논의들에 대해서 쉼스키 교수의 반박 글을 통해 처음 접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래부터 이런 철학적 논의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 온 사람의 서술 방식과는

주장을 옳은 것으로 받아들여, 비록 객관적인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불완전하게나마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논리를 세우려는 노력들이 이어졌다. 이른바 의미 총체론(meaning holism) 논변이라든지, 언어의 노동 분업(division of linguistic labor)이라든지, 관용의 원리(charity principle)와 같은 제안들이 그것이다. 이런 제안들은 개버가이 의미를 고정시키는 데에 마치 사슬처럼 이어질 수 있다.

먼저 '의미 총체론'의 입장을¹⁶⁾ 살펴보기로 한다. '개버가이'라는 말을 자극으로 들으면서, 현지 언어학자는 그 뜻이 토끼처럼 생긴 그 동물의 어떤 속성 단면을 가리키는지 알 길이 없다. 어떤 단면이라고 확신한다 해도 그것을 객관적으로 확정할 척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새로운 언어 자극에 대하여 가능한 모든 속성의 단면들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그 사용 규약이나 방식을 짐작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곧, 그 사회 구성원이 갖고 있는 총체적 믿음이나 믿음의 그물을 바탕

차이가 많을 것이고, 혹 필자가 꼭해하고 있는 엉뚱한 대목들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을 보충하기 위하여, 필자가 찾아 읽을 수 있었던 우리말로 쓰여진 좌인에 대한 글들을 연대순으로 나열해 둔다. 이명현(1982) 『이성과 언어』(문학과 지성사 pp.218-32), 이윤일(1992) 『의미, 진리와 세계』(자유사상사, 제 2장), 정대현(1993) "실재론과 넓은 지칭", 『실재론과 관념론』(철학과 현실사, pp.210-34), 김혜숙(1993) "좌인의 경험주의와 전체주의", 『실재론과 관념론』(철학과 현실사, pp.479-92), 정대현(1997) 『맛음의 철학』(철학과 현실사, 제 7장), 김여수(1997) 『언어와 문화』(철학과 현실사, 제 3-4장), 김영정(1997) 『언어·논리·존재』(철학과 현실사, 제 3장). 한편, 좌인의 저작물 가운데 우리말로 번역된 것은 좌인(Quine 1953 허라금 번역 1993) 『논리적 관점에서』(서광사), 좌인 외(Quine and Ullian 1978 정대현 번역 1984) 『인식론』(종로서적)이 있다.

- 16) 총체론이라는 용어는 다음 배경에서 나온 듯하다. 좌인이 분석명제와 종합명제에 대한 구분이 우리의 믿음 체계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이러한 칸트의 구분이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고(따라서 서로 구분될 필요도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분석·종합에 대한 판단이 믿음에서 비롯된다면, 언어 의미를 결정하는 데에 '우리의 믿음을 총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할 필요가 있게 된다. 자세한 논의는 허라금 번역(1993) 『논리적 관점에서』 제 2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으로 하여 관련될 법한 의미를 짐작하고 추정해 나가야 한다. 총체적 믿음은 외재적 실세계에서 비롯된다. 당장 현지 언어학자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실세계의 경험을 확보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 사회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총체적 믿음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두 측면을 바탕으로 하여, 임의의 단어가 가리키는 의미를 찾아내어야 하는데, 1백 퍼센트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다(번역 불가능성 이론). 그렇더라도 비슷하게나마 찾아낼 수 있는데, 이를 '믿음 고정하기'(fixation of belief)라고 부른다. 이런 과정은 실세계에 있는 외재적 대상을 중심으로 하여 언어 의미를 고정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말뜻을 고정시켜 나갈 때에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전문가의 지시와 안내가 필요하다. 이런 점을 필넴은 '언어의 노동 분업'이라고 부른다.¹⁷⁾ 부끄럽지만 필자는 여태 사투리로 '참꽃'과 '개꽃'이라고 불리는 진달래와 철쭉을 구분할 수 없다. 여러 번 살펴보았지만 그게 그것인 듯하다. 무엇이 진달래인지, 무엇이 철쭉인지 알 수 없다. 다만 그 구별을 잘 하는 친구(전문가)의 안내에 의해, 이것이 진달래이고 저것이 철쭉이라고 구별해 주어 알게 될 뿐이다. 그 친절한 안내도 잠시이고, 바빠 생활하다 보면 그 내용을 어느새 다 잊어 버린다. 새해에 다시 뒷산에 붉은 꽃이 피어나면, 그 꽃이 먹을 수 있는 참꽃이거나, 먹으면 배탈이 나는 개꽃 가운데

17) 필넴(Putnam)의 주장은 기본 글적이 1975년에 발표된 "The meaning of 'meaning'", 『Mind, Language, and Reality』(Cambridge UP, pp.215-71 재수록)에 들어 있다. 의미를 고정해 가는 과정에서 환경의 기여도 간여한다. 곧, 환경이 제공해 주는 본보기들이 단어 지시 결정에 일정한 몫을 한다는 뜻이다. 그의 책 가운데 1981, 1988, 1992가 각각 김효명(1987) 『이성·진리·역사』(민음사), 김영경(1992) 『표상과 실재』(이화여대 출판부), 원만화(1998) 『과학주의 철학을 넘어서』(철학과 현실사)로 번역되어 있다. 필넴도 자신의 이전에 주장하던 관점을 수정하였는데, 필자는 그 자세한 내용을 김영경(1992, pp.263-354)의 역사 후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다.

데 하나일 것이라고만 막연히 느낄 것이다. 필자가 진달래와 철쭉을 고 정시키는 방법은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전문가 에 의한 '언어의 노동 분업'이라고 부른다.

그렇더라도, 필자가 의존하는 전문가가 늘 옳은 판정을 내릴 것이라 고 장담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우연히 유전자 변형에 의해서 철쭉의 외양을 갖지만 그 꽃잎을 먹을 수 있는 돌연변이가 나왔다고 해 보자. 그래도 여전히 그 변형된 대상을 먹을 수 없는 개꽃 또는 철쭉이라고 불러야 하는가? 실세계에는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선뜻 결정할 수 없 는 경계 지점에 놓인 대상들이 있게 마련이다. 이럴 경우에는 서로 의 심점들을 조금씩 삭감하고, 다소 틀리더라도 그 차이를 너그럽게 받아 들일(寬容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이를 데이빈 슨은¹⁸⁾ '관용의 원리'라고 부르고 있다. 필자가 철쭉을 진달래라고 부르 고, 진달래를 철쭉이라고 부르더라도, 필자와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상 대방은, 그런 차이들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능히 그 잘못을 고쳐 청자 쪽에서는 철쭉을 철쭉으로, 진달래를 진달래로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무안해지는 일을 피하기 위해, 필자의 언어 사용이 잘못임을 지 적하지 않고서도, 청자는 혼자 속으로 그렇게 교정 해석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18) 필자는 데이빈슨(Davidson)의 논지를 이영철, 『진리와 해석 : 데이비슨의 원초적 해석론과 진리조건적 의미 이론』(서광사, 1991)을 통해 배울 수 있었다. 사족을 하나 덧붙인다. 과인과 필립과 데이빈슨의 주장은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 전부도 아니며, 그 논지 전개 절차나 과정도 아주 다르다. 이들 철학자가 다루고 있는 내용 가운데 일부가 언어의 지시 문제와 거기에 따른 해석 교정 과정인데, 언어와 관련되어 새롭게 밝혀진 사실에 의해서 그러한 논지의 일부가 그 사실을 수용하는 쪽으로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온당하다. 우연히 필자의 서술 방식이 대 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촘스키 교수의 논점에 따라 그의 주장을 부각시키기 위한 편의상의 조치이다. 이들 철학자의 지시에 대한 논의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결코 그들의 다른 논의가 함께 무위로 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과연 옳은 것일까? 우리들의 언어 행위의 본질을 정확히 드러내 주는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천재들의 두뇌에서 찾아진 것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어린아이가 언어를 습득하는 단순한 모습에서 찾아졌다. 그 대답은 간단히 ‘개머가이’ 논제 자체가 잘못 제기된 물음이라는 것이다. 어린이들은 ‘날말의 수적(數的) 폭발’이나 ‘날말 분출’이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속도로 날말을 익혀 가는 시기가 있다. 2살 전후로부터 10살 전후까지가 그 시기이다. 이를 도표로 그리면, 사춘기 때 육체의 성장 곡선과 유사하게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린다. X축이 나이이고, Y축이 어휘의 총량이라면, 그 그림이 ‘J’처럼 된다.¹⁹⁾ 이런 현상을 놓고서, 경험에 의해 날말이 습득된다고 가정할 수는 없다. ‘감각/지각’ 경험이 늘 양적으로 비슷할 것이며, 따라서 날말 습득은 균질적인 증가세를 띠어야 할 것이다(곧, 기울기가 45도가 됨). 그러나 이는 날말 습득 사실과 어긋난다. 그런데, 하루 7개에서 10개 정도의 날말을 익혀 나가려면, 아무렇게나 주먹구구식으로 익힐 수는 없다. 어떤 원리에 따라 학습이 일어나는 것으로 가정해야만 한다. 이런 가정 중에는 온전한 대상물 가정, 상호 배타성 가정, 분류적 가정, 존재 범주에

19) 핀커(Pinker 1994, 김한영 외 번역 1998) 『언어 본능 (상·하)』그린비, 제 9장에서는 이런 현상을 생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따로 날말 습득을 돕는 시냅스를 가외로 형성할 수 있는 특별한 ‘일회 유전자’가 있어 이 시기에 발현하는 것이 아닌가 짐작하고 있다. 그는 “날말 학습 능력이 왜 특별한 시기에 발현되며, 특정 시기가 지나면 그 능력이 없어져 버리는 것일까?”라고 질문을 던진다. 그의 추정을 받아들이면, 날말을 받아들이는 신경 연결 그룹들이 갑자기 많아지고, 그 그룹에 의해 포착된 날말들이 무한히 다양한 형태의 호르몬들로 바뀌어 장기 기억 창고로 들어가는 것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런 가정은 현재 지식 수준으로는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온당하다. Bloom(2000) 『How Children Learn the Meaning of Words』(MIT Press, p.44)에서는, 하루에 10개의 단어를 배운다는 클락(Clark 1983:13)에서의 진술을 다음처럼 구체화하여 제시한다.

12~16개월(하루 0.3개), 16~23개월(하루 0.8개), 23~30개월(하루 1.6개),

30개월~6년(하루 3.6개), 6년~8년(하루 6.6개), 8년~10년(하루 12.1개)

대한 가정, 모양새에 대한 가정 등, 여러 가정이 제안되어 있다.²⁰⁾ 여기서 '개버가이' 논제와 관련된 것은 '온전한 대상물' 가정(whole-object assumption)과 '상호 배타성' 가정(mutual exclusivity assumption)이다.

어린이들은 어떤 대상에 대해 낱말로 지시되는 것을 들을 때에, 그 낱말이 그 대상의 전체 형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를 '온전한 대상물' 가정이라고 부른다. 이는 과인의 해석이 확정될 수 없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한다. 어린이들이 낱말을 들으면, 부분이나 단면적 속성을 관련짓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형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일단 유사하거나 같은 형태의 대상에 대해 한 낱말을 익혔다면, 다시 그 대상과 유사하지 않은 대상들을 추가하여 다른 낱말로 부르면서, 그 다른 낱말이 가리키는 대상을 찾으려 한다. 어린이는 곧 추가된 대상을 가리키게 된다. 이런 특성을 '상호 배타성' 가정이라고 부른다. 상호 배타성 가정은 또 다른 방향으로도 작용한다. 만일 새로운

20) 여기서 '가정'이라는 말은 어린이들이 그렇게 가정한다고 상정하는 것이다. '온전한 대상물 가정'을 더 정확히 표현하면, 어린이가 스스로 세우는 '온전한 대상물 가정'에 대한 심리학자의 가정인 것이다(Hypothesis on the whole-object assumption). 이를 이론에 대한 이론(theory theory)으로도 표현한다. 어린이 낱말 습득에 대한 논의로 우리말로 쓰인 글은 이현진(1998) "언어 습득에서의 제약"(이정모·이재호 편 1998, 제 14장)을 참고할 수 있다. 이 절에서 논의하는 온전한 대상물 가정과 상호 배타성 가정은 Markman(1990) "Constraints Children Place on Word Meanings" (Bloom ed. 1994 『*Language Acquisition—Core Readings*』 MIT Press 제수록)와 Markman(1993) "Early Language Acquisition" (Gleitman and Landau eds. 1994 『*The Acquisition of the Lexicon*』 MIT Press 제수록)을 참고할 수 있다. 언어 습득(또는 성장)에 대한 논의에서는, Bowerman and Levinson(2001)에 따르면, 어린이가 얼마나 다양한 유형의 언어를 습득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편적인 개념을 분명히 만들어 가는지가 핵심이다. 이를 다양성(diversity) 및 제일성(uniformity 齊性)의 문제라고 부르고 있다. 또한 어린이들에게서 언어가 없어도 개념이 발달하는 것인지, 특정한 언어에 따라서 개념이 발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학자들이 논의에 참여하고 있어 큰 지도를 그리는 데에 도움을 준다.

형태의 대상물이 추가되지 않을 때에 그 대상이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면, 비로소 그 대상의 내부 속성들(재질 따위)을 가리키는 것임을 깨닫게 해 준다. 이현진(1998:391)에서는 오 외(Au & Glusman 1990)의 실험을 소개하고 있다. 세 살 난 아이들과 다섯 살 난 아이들에게 네 마리 장난감 동물을 보여 주었다. 사냥개와 잡종개와 낙타와 플라밍고이다. 네 대상 가운데 사냥개와 잡종개만이 '개'의 범주에 속한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사냥개를 보여 주면서 '미도'라고 하는 새로운 낱말을 들려 주었다. 이후 네 개의 대상들 가운데 '미도'를 고르도록 하자, 아이들 85%가 사냥개 장난감을 골랐다. 다시 아이들에게 들어 보지 못한 새로운 이름인 '테리'를 고르게 하자, 이번에는 사냥개 장난감이 선택되지 않았다. 이 실험의 결과는 아이들이 '개'라는 범주에서 '미도'라는 새로운 낱말을 사냥개와 잡종개를 구별해 주는 하위 범주의 낱말로 파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어린들이 낱말을 익힐 때 먼저 '은전한 대상물 가정'을 적용시키고, 다시 같은 범주의 대상에 대해 다른 이름이 주어지면, '상호 배타성 가정'을 적용시켜 그 대상의 내부 속성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사실은, '개버가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먼저 그것은 토끼처럼 생긴 동물의 전체 형태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언어학자가 원주민을 계속 따라다니다가 같은 형태를 가진 다른 대상을 만났다. 이번에는 전혀 다른 낱말(가령 '이가버개')을 들었다. 이제는 이 낱말이 그 대상의 내부 속성에서 가장 현저한 것을 가리킨다고 알게 될 것이다. 내재주의 관점에서 이와 같은 낱말 습득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선 낱말이 외부 대상에 의해 마련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임의의 대상이 주어지면,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언어 습득 기제는 그 대상의 형태를 파악하고 그 형태에 대해 새로운 낱말을 대응

시키는 것이다. 다음 단계도 또한 우리 머릿속에 있는 프로그램에 따라, 같은 범주의 형태에 대해 다른 낱말이 주어지면 '상호 배타성' 가정을 적용하여 그 대상의 내부 속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뜻을 고정시키게 될 것이다.²¹⁾

2-4. 철학자들의 지시 의존적 의미론은 불필요하다

앞에서의 논의가 바른 길 위에 있다면, 더 이상 외부 지시물에 근거하여 낱말을 비롯한 언어의 의미를 고정시키는 시도는 잘못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외부 지시물과 언어 사이에 뜻을 고정시키는 방법을 객관적으로 찾아낼 수 없다는 '지시 불투명성' 또는 '번역 불확정성'의 입론도 철회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촘스키 교수는 다음처럼 언급한다.

As for semantics, insofar as we understand language use, the argument for a reference-based semantics seems to me weak. It is possible that

21) 이런 과정은 비단 특정 시기의 낱말 습득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웨킨돌(2002:301)에서는 우리 어른들의 시지가 고정 과정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남을 다음 예로 보여 준다. 다음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 것일까?

(가) • • (나)



맨 앞에 있는 그림에는 오직 네 개의 점만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시지가 기관은 그 물리적 실체와는 무관하게 네 개의 점을 사각형으로 지각하기 일쑤이다. 그 까닭은 사각형의 지각은 모서리 씹을 근거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새로 고쳐 보게 되는 보정 추론은 우리 머릿속에 구성해 놓은 실세계 모형과 경험을 받아들이는 감각/지각 기관 사이에 조정 과정의 일부인데, self-produced image와 non-self produced image 사이의 차이에 대한 조정이 된다). 뒤에 있는 그림은 물리적으로 세 개의 사각형들이 서로 붙어 있다. 그렇지만 이런 물리적 사실과 상관 없이, 우리의 시지가 기관은 두 개의 사각형이 교차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일쑤이다. 겹쳐 있다고 파악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자극체로부터 망막으로 들어오는 시지가 정보는 전무하다. 그렇지만, 우리는 (뒷부분에 있다고 보는) 이어져 있는 사각형에 의해 교차된 부분이 가려진 것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natural language has only syntax and pragmatics; it has a 'semantics' only in the sense of "the study of how this instrument, whose formal structure and potentialities of expression are the subject of syntactic investigation, is actually put to use in a speech community," influenced by Wittgenstein, Austin and others. In this view, natural language consists of internalist computations and performance systems that access them along with much other information and belief, carrying out their instructions in particular ways to enable us to talk and communicate, among other things.(Chomsky 2000b:132)

의미론에 관해서, 우리가 언어 사용을 이해하는 한, 저자에게는 지시에 바탕을 둔 의미론을 변호하는 논의는 온당치 않아 보인다. 자연 언어는 단지 통사론과 화용론만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비트겐슈타인과 오스틴과 다른 사람들의 영향 아래, "그 형식적 구조와 표현의 잠재적 모습들이 통사론 탐구 주제가 되는데, 이 도구(=자연 언어)가 의사소통 공동체에서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를 연구한다는" 점에서만 '의미론'(=즉, 화용적 의미론)을 갖는다. 이런 견지에서, 자연 언어는, 다른 더 많은 정보 및 믿음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우리들로 하여금 말을 하고 의사 소통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특정한 방식으로 그 지시 사항들을 수행하면서, 통사론 및 화용론에 접근하는 내재주의자의 연산 체계와 수행체계로 구성된다.

통사론과 화용론만을 상정하는 내재주의의 관점을 채택함으로써, 언어와 언어 사용에 대해 어떤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연구 결과들이 어떻게 우리의 이해를 도울 것인지에 대해 장을 달리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내재주의 노선에서의 탐구

'내재주의' 노선에서의 탐구란, 간단히 말하여, 언어가 우리 두뇌 속에

있는 정신이란 실체의 구현물이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두뇌 속에 들어 있는 정신 구현 주체를 다루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기본적인 연구 방법을 짓혀 놓고서, 우회적으로 연구하는 방식은 언어의 본성이나 본질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므로 마땅히 비판되고 거부되어야 한다. 덧붙여, 촘스키 교수는 아직 우리의 현재 지식 상태가 두뇌의 작용 방식에 대하여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의 내성에 의해 쌓여 온 연구 결과들은 장차 혁명적인 사고 전환에 의해서 모순 없이 통합되기를 희망한다.

최소주의 연구 계획이 진행된 이래, 촘스키 언어학은 더 이상 언어학이 아니다. 오히려 언어를 매개로 한 두뇌 인지 과학이라 불려야 할 것이다. 곧, 두뇌 인지가 가동되고 작동하는 열개와 그 모습을 더듬으며 찾는 일의 기초 공사를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옛날 작업에서는 고유한 연구 대상으로 언어가 있었고, 그 영역에 관여하는 규칙과 원리들을 찾거나 상정할 수 있었다. 언어의 내적 질서를 찾는 노력들이었다. 그러나, 최소주의 연구 계획에서부터는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거나 폐기될 운명이다.²²⁾ 대신, 일반 두뇌 인지 작용에 관여하는 원리 위에서 언어 질서를 재구축하게 된다. 언어의 층위를 다만 어휘부를 갖는 '언어 능력'과 두 개의 상호접합면을 갖는 '수행 체계'로 상징하는 일부터가 "언어에 의한, 언어를 위한, 언어의 층위"가 아니다. 다른 인지 기관들을 전제로

22) 촘스키(2000b:10f.)에서는 과거에 중요한 개념이었던 지배·결속·지표·구절 구조·핵 계층(X-bar) 등을 모두 폐기하는 대신, 부자연스럽다고 하여 중요시하지 않았던 구성성분 통어(c-command)만을 남기게 되었음을 언급한다. 후자는 연산 과정에 시중 관여하는 개념으로, 언어 요소들의 지역적(local 국지적) 관계를 포착해 준다. 이런 변화는 다른 데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다른 인지 기관들과의 상호작용을 기본적으로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즉, 다른 인지 기관들이 단독 가능한 지시 사항들만을 만들어 내어야 한다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 이전에는 언어가 주인이었고, 다른 인지 기관들이 하인이었지만, 지금은 주인과 하인이 뒤바뀐 셈이다.

하여 그 기관들과의 상호작용을 가정하는 층위 설정인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인지 기관들이 언어와 같이 가동되고 작동하는 것일까? 아직, 아무도 이 물음에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는 없다. 이런 배경에서 자신의 연구를 하나의 계획(a program)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더듬어 가는 듯한 단계일 뿐이다.

그런데 가장 단순한 언어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이 두뇌 속에서 표상되는 방식과 그 산출/처리와 관련된 과정은 매우 복잡하다. 소박하게 보면, 소리 처리를 맡는 부서로부터 시작하여, 형태와 어휘, 그리고 통사와 구절, 문장과 담화, 표현 의도와 맥락 등 여러 부서들이 각각 독립된 '단원체'로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정보를 주고 받는다. 소리에 관련된 정보는 문장과 담화에 관련된 층위에서 보이지도 않고 또한 필요하지도 않다. 마찬가지로 형태와 어휘에 대한 정보도 표현 의도나 맥락과 관련된 층위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 각 단원체들이 마치 섬들처럼 독자적인 영역 속에 갇혀 있어(encapsulated compartment), 직접 이어져 있는 통로를 거치지 않고서는 정보를 주고받을 수도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 튜어링의 '사고 모형'이 연산을 기초로 한다는 점을 제외하면,²³⁾ 우리 정신 모형으로서는 알맞지 않다고 비판을 받는 근거가, 바로

23) 튜어링의 글은 필자 웹페이지(<http://nongae.gsnu.ac.kr/~jhongkim>) 번역을 참고하기 바라며, 범용 튜어링 기계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로는 Herken ed. 1995, 『The Universal Turing Machine : A Half-century Survey』 (Springer-Verlag)를 참고할 수 있다. 우리말로 된 포더의 단원성에 대한 개관은 조명한, “언어 처리 이론으로서의 단원성의 문제”, 이정모 외 『인지 과학 — 마음·언어·계산』(민음사, 1989)를 참고할 수 있다. 전문 용어로 computation(연산)과 calculation(계산)을 구분하여 쓴다. 연산(演算, 좌변을 우변으로 늘여 헤아림)은 입력과 출력으로 이루어진다. 충분 조건만이 만족되면 그만이다. 그러나 계산(計算, 좌변과 우변을 제어서 헤아림)은 그 출력이 다시 이전 입력으로 환원될 수 있어야만 한다. 곧, 필요 조건까지 만족돼야 하는 것이다. 이를 형식적으로 각각 다음처럼 나타낸다. 연산: $X \rightarrow Y$, 계산: $X \leftrightarrow Y$ (또는, 연산: $X=Y$, 계산: $X \equiv Y$). 쉘스키(2000b:25, 26) 교수는 언어가 연산-표상적(computational-representational :C-R) 처리 절차

이러한 정신 연산의 단원적 처리 특성이다. 튜어링 모형에서는 반드시 중앙 연산 처리기가 있어야 하지만, 우리 정신에는 모든 것을 통괄하는 상위 기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비유를 들면, 절간에 있는 공간들과 같다. 절간 안의 집들은 모두 기도와 수행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각각 독립된 기능을 갖는다. 대웅전에서 하는 일과 칠성각에서 하는 일이 다르고, 산신각에서 하는 일과 명부전에서 하는 일이 따로 있다. 비록 대웅전이 중심선에 대표로 내세워져 있다고 해도, 대웅전에서 칠성각이나 산신각 또는 명부전의 일에 대해 명령을 하거나 대신 그 일을 할 수는 없다. 별개의 신격들이 사이 좋게 연합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원체 가정에서는, 우리의 정신 작용도 어떤 상위의 통괄 부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대신, 여러 개별적 기능을 갖는 단원들이 함께 모여 작용함으로써 우리의 정신 작용이 생겨나는 것으로 본다.²⁴⁾

를 따른다고 본다(For the present, the best-grounded naturalistic theories of language and its use are C-R theories... C-R approaches provide the best-grounded and richest naturalistic account of basic aspects of language use). 필자가 이해하기에, 언어 처리에 대한 ‘연산·표상적’ 관점은 램스키 교수의 독창적인 생각이 아니라, 마어(Marr 1982) 『Vision』(W.H. Freeman and Company)에 있는 3차원의 시지각 처리 모형인 연산 차원·표상 차원·구현 차원(computational level·representational level·implemetational level)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24) 다른 비유로, 부족 연맹 체제와 중앙 집권 체제를 들 수 있다. 포더의 단원체 가정에서는 두뇌 작용은 늘 부족 연맹 체제와 같이 독립된 부서들의 연합 작용이다. 그러나 튜어링 가정에서는 중앙 집권 체제로 되어 있어 모든 연산 과정을 조정하는 상위 부서가 상정된다. 현재 밝혀진 두뇌 생리학적 연구 결과는, 피아제(Piaget)의 ‘일반 인지 능력’도 더 해체되어 여러 단원체들의 조합으로 이뤄져 있을 가능성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케린들 2002:21이하). 생물의 진화와 관련된 단원체의 논의는 다음의 웹 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① <http://www.kli.ac.at/workshops-c.html?stuff/workshops/wtb-00>

② <http://gral.ipirm.cnr.it/rcalabretta/modularity.html>

한편, 서얼(Searle)은 우리 정신의 실체가 뇌 신경 그물들이 ‘역제/홍분’의 점화 기제로

줌스키 교수는 머릿속 언어(I-언어)와 관련하여,²⁵⁾ 두 개의 부서를 상

구성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인공 심장이 만들어지듯이, 인공 두뇌도 가능하다고 보며, 그는 낮은 차원(생리화학적 뉴런 연결)의 지향성과 높은 차원(자기 의식)의 지향성을 구분한다. 서얼(1998, 심철호 역 2000) 『정신·언어·사회』(해냄)에서 그의 주장을 파악할 수 있다. 반면, 포더는 그런 구현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최근 단원체 가정의 극단적인 적용(Finker 1997)을 경고하는 Fodor 2000, 『The Mind doesn't Work that Way』(MIT)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정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려면 몇 광년(light years)을 족히 기다려야만 한다. 포더의 입장은 줌스키 교수의 통합주의 입장과 통한다. 아직 두뇌/정신 기능을 규정하는 물질(body) 또는 물질적 실체(physical reality)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나 내용이 알려져 있지 않다는 지적(줌스키 2000b:26, 166이하)을 다음처럼 풀어 말할 수 있다. 한 '날말'의 내재적 실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비록 연결주의(또는 병렬 분산 처리 가정)에서 뉴런들의 '억제/흥분' 사슬 연합을 통하여 새로운 단어를 받아들이는 모형을 보여 주지만, 그런 모형이 과연 옳은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날말이 뉴런 연결 그물로 표상되는지, 뉴런들 사이에서 정보를 주고받는 호르몬 분자 덩어리로 표상되는지, 아니면 제 3의 대상이 존재하여 그것이 어떤 장(field, 바탕)을 이루고 있는지, 현재 지식으로는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없다. 곧, 반중도 검증도 불가능한 것이다. 필자는 이 문제의 본질이, 현재 우리가 '기억'의 생리화학적인 기반에 대해서 아무런 것도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25) 'I-language'의 수식어 'I'는 individual/internal/intensional이라는 뜻을 동시에 모두 갖고 있는데, 유전 인자의 발현으로 인해 "각 개인의 머릿속에 들어 있는 내포적인"으로 풀이할 수 있다(Chomsky 2000b:70, 78, 169, 200). 여기서 '내포적'이란 말은 '구조 기술을 열거하는 특정한 함수(a function enumerating structural description:70, 78)를 가리킨다. who나 nobody와 같은 날말이 [연산자 - 명세 내용 - 변형]의 형식, 즉, [[QUx, x person][...x...]]와 같이 표상되므로(p.175), 내포적이란 수식어는 보편 개념으로서 문태규의 내포논리와 유사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는 매우 특이한 조어 방식이며, 보통 사람들의 직관을 바탕으로 하는 민간 과학으로는 우리 정신이라는 실체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는 줌스키 교수의 반성을 반영하고 있다. 그 뜻에 충실하면, 굳이 이 용어를 번역해서 쓸 필요가 없겠지만,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학술 용어도 그 대상의 중요한 단서를 반영해 줄 때 비로소 이해가 쉬워지고,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화두(話頭)조차 일상 언어를 도구로 쓰고 있지 않은가). 여기서는 '머릿속 언어'라고 쓰고 팔호 속에 '(I-언어)'를 같이 써 넣기로 한다. 이 용어는 어휘부의 하위 부서인 I-meaning과 I-sound(170ff.)를 가리킬 때에는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단어가 유전 인자의 발현으로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외적 경험과 함께 우연히 그 내용을 가리키기 위해 습득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왕따'라는 말은 결코 유전 인자에 의해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특정한 사건 개념이나 경험을 가리키기 위해 후천적으로 습득한 것이다. 부사어로 기능하는 명사 '王'과 동사 '따돌리다'의 일부 어근이 합쳐

정하고 있다. 어휘 항목의 정보를 받아들여 그 정보 내용대로 관련 항목들을 배열하는 부서와 더 큰 구성체를 만들어 내기 위해 연산을 수행하는 부서만으로 족하다고 본다. 이를 간단히 '어휘부'와 '연산부'라고 부른다. 이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처리 과정인데, 이 일이 끝나면 소리를 만들어 내는 부서(sensorimotor system, 지각운동 체계)로 정보를 보내고, 동시에 '사고와 행위'를 맡는 부서(conceptual-intentional system, 개념 및 의도 체계)로 유관 정보를 보내게 된다.²⁶⁾ 이들이 다른 두뇌 부서 또는 두뇌 기관과 연결되어 있고, 다른 기관에서 판독할 수 있는 정보를 전해 준다는 점에서, 이들을 상호접합면(interface)이라 부른다.

다른 인지 기관들이 판독할 수 있는 정보나 지시사항을 보내주기 위해서, 언어는 어떤 요소들을 갖고 있어야 할까? 이 물음에 촘스키(2000b:10)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한다.

- (7가) 의미의 상호접합면에서 해석되는 의미 자질들
- 나) 음성의 상호접합면에서 해석되는 음성 자질들
- 다) 어느 상호접합면에서도 해석되지 않는 자질들

저서 명사로 되었는데, 머릿소리(acronym) 모아 붙이기 절차에 따라 '오직 한번만 적용 되어' 나온 매우 특이한 사례이다. 이런 사례까지 설명하기 위한 수식어라면, '머릿속'에 들어 있는 어떤 어휘 항목을 가리키는 정도의 기능밖에는 없을 것이다. 'I-belief system'(32f,193)이라는 대목에 따르면, 더 이상 'I'라는 수식어가 불필요하다. 믿음이 머릿속에 있는 것이고, 믿음이 머릿속 밖에 외재적 실체로 존재하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즉, 수식어 'I'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

26) 이 부서들이 머릿속 언어(I-언어) 속에 들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밖에 있는 다른 기관들인지에 대해서는 이를 결정할 만한 연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본다(촘스키 2000b:174이하). 90년 중반에는 머릿속 언어(I-언어)를 '언어 능력'으로 부르면서, 언어 능력이 수행 체계로 통합되어 들어간다고 생각한 듯하다(촘스키 2000b:27f.). 여기서 수행 체계는 음성 형식(PF)과 논리 형식(LF)으로 나뉘는데, 논리 형식은 '사고와 행위'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첫째 자질은 논리 형식(LF)으로 불리는 층위에서 작동하는 것이고, 둘째 자질은 음성 형식(PF)로 불리는 층위에서 작동하는 자질이다. 그런데 왜 군더더기처럼 세 번째 다른 요소가 들어가는 것일까? 이는 어휘부로부터 투영된 내용들을 연산하기 위한 장치이다. 셋째 요소들은 촘스키 연구 계획에서 다음에서처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간이 우연히 진화 과정에서 언어 능력을 획득하였든지, 아니면 아주 뛰어난 초특급 기술자가 우리 언어 능력을 도안하고 심어 주었든지 상관 없이, 우리가 다루고 있는 '언어 능력'은 완벽한 것일까? 생리언어학(biolinguistics)적으로 표현하여, "과연 우리의 언어 기관은 완벽한가?" 필자는 '완벽'(perfect)이란 개념이 중의적으로 쓰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언어 기관의 내적 구성이 완벽한지, 언어 기관의 연산 작용 또는 작동 방식이 완벽한지, 또는 다른 기관과 더불어 공조하는 일이 완벽한지 등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촘스키 교수는 연산 작용이 완벽한지에 대해서만 묻고 있다. 그 대답은 두 가지이다. 허튼 작용이 없이 경제적으로 완벽히 짜여져서 군더더기가 없다면 완벽하다고 대답할 것이고, 잉여적이고 중복되어 있으며 비경제적으로 연산 작용이 일어나면 완벽하지 않다고 대답할 것이다. 셋째 요소들은 언어 기관의 완벽성을 입증하기 위해 큰 몫을 한다.

어휘부는 여러 자질들이 들어 있는 창고이다. 언어를 이루는 형식과 내용이 다 들어 있다. 또한 개별 언어를 가르는 언어 변이(variation) 특징들도 어휘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일단, 소리와 의미를 이루는 요소를 차치해 두면, 통사 구성 요소로서 어휘범주 및 기능범주 요소들이 들어가 있다. 기능범주 요소에서,²⁷⁾ 특히 활용(inflexion) 요소들은 연산 작용

27) 여러 가지 기능범주의 하위 요소들의 연산 작용에서의 역할은 아직 다루어지지 않은 과제들이다. 이들이 촘스키 교수의 제안대로 완벽하게 연산 작용에 필요한 것인지 여

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곧, 자리 옮기기(displacement)에서²⁸⁾ 열쇠가 된다. 의견상, 상호접합면에서 판독되지 않는 자질을 가진 요소들과 임의 요소가 자리를 옮기는 속성은 '비완벽성'(imperfection)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들이 서로 긴밀히 공모 관계에 있는 것이고, 따라서 불가피하게 서로를 필요로 한다면, 다시 말하여, 정당한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라면, 완벽하지 않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거꾸로, 이 점이 언어 설계(도안)의 '완벽성'에 대한 증거로 채택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논지이다.

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직관적으로 그러하지 않을 것임을 우리말의 자료로 짐작할 수 있다. 보조사라고 얘기되는 것은 화용 층위에서 작용하는 것이며, 60개가 넘게 제시된 연결 어미도 여러 가지 화용적인 함의(그라이스의 용어로는 conventional implicature)를 지니고 있다. 즉, 논리 형식(LF) 층위를 넘어선 수행 체계의 특성들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긍정적인 대답은 부분적으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8) 이 용어는 두 가지 뜻으로 쓰이고 있다. 발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의 꿀을 동료들에게 알려 주는 속성도 'displacement'의 하나이다(츨스키 1997). 이 때에는 '멀리 떨어진 곳 가리키기'라고 말해야 옳다. 여기서는 임의의 항목이 특정한 곳으로 움직이는 것을 뜻한다. 이전의 '임의범주 이동'(Move- α)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자리 옮기기'라고 번역해 둔다. 이 두 내용은 '과정과 결과'의 한 사슬로 묶여 있다. 원래 자리를 떠나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 '과정'이다. 다 옮겨 가고 나서 원래의 자리를 가리키는 것이 '결과'이다. 한국어의 논의에서 잘못 쓰이는 대표적인 용어(能格, ergative는 '자발적 행위주 격'으로 번역되어야 옳다)가 있는데, "철수가 종을 올린다 : 종이 올린다" 또는 "영이가 차를 멈춘다 : 차가 멈춘다"라는 예에서 과정과 결과의 변동을 살필 수 있다. 동일한 어휘가 접미사의 도움 없이 과정을 가리키기도 하고, 결과를 가리키기도 하는 것이다. 영어에서는 "she dried the pants : the pants dried"와 같은 예가 한국어보다 더 쉽게 관찰된다. Levin과 Rappaport의 일련의 논의에서는, 이들을 '행위 과정'으로부터 '결과 상태'로의 변동이라고 설명한다. 타동사 구조를 갖는 것이 상태가 변화되어 나가는 과정을 가리키고, 자동사로 표현된 것들이 과정이 끝난 뒤의 결과 상태를 나타낸다 (<http://www-csli.stanford.edu/~beth/pubs.html>). 이런 개념은 중국 송나라에서도 일찍이 동정(動靜, 사건과 상태, 동사와 명사)이란 개념으로 기술된 바 있다(최세진의 『사성통해』에 있는 부록 '動靜字音'을 보기 바람). displacement도 ① 옮겨가는 과정을 가리키느냐, ② 옮긴 뒤에 결과 상태로서 원래의 자신의 있던 자리를 되가리키느냐, 두 가지로 변동된다고 말할 수 있다.

- (8가) seems to have been elected Lee.
 나) elect Lee
- (9가) Lee seems to have been elected.
 (이씨가 뽑힌 듯하다, 선출된 듯하다)
- 나) It seems to have been elected Lee.
 (이씨가 뽑힌 듯싶다)
- 다) There seems to have been elected Lee.
 (이씨가 뽑힌 듯싶다)
- 라) seems to have been elected a candidate
 (누군가 뽑힌 듯하다)

(8가)와 (9)에는 상위문과 내포문이 들어 있다. 의미 해석을 위해서(또는 LF 층위에서 판독될 수 있도록), 내포문의 동사 'elect'는 (8나)에서와 같이 대격 논항 'Lee'를 지엽적(국지적)으로 성분통어한다. 그런데 (8가)의 상위문 동사(주동사) 'seems'는 아직 해석되지 않은 현재·3인칭·단수를 나타내는 활용 자질을 갖고 있다. 이 자질은 (7다)의 요소로서, 어느 상호접합면 층위에서도 판독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판독 가능한 부합 자질이 아니다. 위반(offending) 자질이다. 상호접합면의 조건을 충족시키는(satisfy) 길은, 직관적으로 위반 자질을 지울 수 있도록 서로 떨어져 있는 부합 자질과 지엽적(local) 관계를 요구하는 것이다.²⁹⁾ 이 자질은 일치를 이루는 명사 'Lee'에 들어가 있는데, 명사 속에 초기값으로 들어가 있는 자질을 지우는 일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위반 자질이 'Lee'의 부합 자질을 뽑아 올리거나, 영어의 특성으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은 요소를 요구한다. 그 결과가 각각 (9가)와 (9나,다)이다. 더

29) 줍스키(2000b:15)에서 "uninterpretable formal features must be erased in a local relation with a matching feature, yielding the displacement property required for semantic interpretation at the interface"라고 언급하고 있다.

극적인 주장은, 부합 자질을 뽑아 올릴 때, 다만 자질들만이 홀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모습은 (9라)와 같고, 이를 '비가시적'(covert) 이동이라고 부른다(스페인 자료와 두뇌 손상 환자의 사례를 들고 있음).

(7다)의 자질은, 결국 모든 요소들을 부합 자질로 바꾸어 줌으로써, 이동이라는 연산 작용이 일어나도록 하는 목적을 지닌다.³⁰⁾ 이 주장이 옳다면, 연산 작용에서 어떤 자질이든지 모두 필요 불가결한 것이 된다. 과연 그럴까? 옛날 '제자리 이동'(無이동)을 한다고 기술된 언어들에는, 어떻게 이 주장이 적용될 수 있을까? 한국어의 대우 형태소 '-으시-'(손을 잡으시다)는 위반 자질이지만, 이동이 일어나지도 않기 때문에 부합 자질로 만들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영어만 완벽한 언어 기관이고, 한국어는 완벽하지 않은 언어 기관인가? '언어 기관'(언어 능력) 자체가 개별 언어에 적용될 수 없는 용어이다. 따라서, (7다)에 해당하는 요소들은 촘스키 연구 계획을 유리잔처럼 부수어뜨릴 첨병으로 보인다.

4. 무한 퇴행과 언어 사용의 문제

4-1. 언어 사용의 신비

내재주의 언어 철학에서 제일 취약한 부분은 언어 사용과 관련되어 있다. 이 부분은 이전에 언어 '수행 능력'이라고 불리거나 또는 '화용 능력'으로 불린다. 이 부분은 데카르트가 살던 때에도 '신비'(mystery)로 취급되었다. 촘스키 교수는 수행 능력을 지금도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문

30) 연산 작용은 Merge(붙이기)와 Move(옮기기) 두 가지만 상정되고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 두 가지도 하나의 상보적 개념으로 고쳐질 수 있다. 즉, '붙이기/떼기'(attach/detach)이다. Move라는 개념을 따로 내세우지 않더라도, 떼어낸다면 자연스럽게 붙이기 작용만이 초기값으로 작용하므로, 자연스럽게 뽑혀 올라가게 되며, 같은 결과를 낳을 것이다.

제가 아니라, 여전히 '신비'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비유를 다음처럼 들고 있다. 실험실의 쥐는 학습을 통해 미로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소수(prime number)의 존재는 인식할 수조차 없다.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하는 인지 기관이 쥐에게는 없기 때문이다. 동일한 논리로, 인간의 인지 기관도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다. 쥐의 인지 기관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그 개체가 인식할 수 있는 대상들이 한계가 있듯이, 우리 인간에게도 조금도 인식을 허용하지 않는 대상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언어 사용이 그러한 부분으로 간주된다. 앞에서 주로 내재주의 언어 철학이 우리의 인지 기관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다루었다면, 언어 사용의 문제에서는 인지 기관의 철저한 제약과 한계를 마주하게 된다. 과연 언어 사용은 우리가 다룰 수 없는 영역일까? 인간을 초월한 신의 영역에 있는 것일까?

4.2. 불완전성 정리와 무한 퇴행

쉴스키 교수의 산비주의적 태도는 괴델의 불완전성의 정리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안다.³¹⁾ 괴델(Gödel)은 24살에 비엔나 대학에서 박사 논문으로 러셀과 화이트헤드가 쓴 『수학 원리』(3권)의 완벽성 여부를 다루려고 하였다. 이른바 수리 논리에 바탕을 두고 집필된 『수학 원리』는, 가장 밑바닥에 더 이상 다른 것으로 환원될 수 없는 '공리계'를 깔고 있다. 즉, 공리계는 무(無)정의 용어(undefined terms) 또는 원시 용어(primitive terms)로 구성된다. 그렇지만, 괴델은 그 공리계가 어디에서도 완벽성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처음 깨달았다. 공리계가 완벽성을 입증 받으려면,

31) 이 생각을 필자는 그라이스(Grice 1989: 제 18장) 글을 읽으면서 배웠다. 그라이스는 언어 사용에서 무한 퇴행의 형식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책의 일부 내용은 필자의 웹 페이지에 번역이 올라 있다.

어떤 상위의 다른 공리계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만, 그 상위 공리계도 운명적으로 다시 완벽성을 입증 받아야 한다. 완벽성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다. 흔히 이를 무한 퇴행(infinite regression)이라고 부른다.³²⁾ 무한 퇴행을 몇게 할 방식은 우리 인간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형식적으로 엄격하게 결정할 수 있는 방식이란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 것이다(formally undecidable). 이것이 소위 1930년에 박사 논문으로 제출된 '불완전성' 정리(incompleteness theorem)이다.

도대체 불완전성의 정리가 언어 사용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 언어 사용은 '창조성'의 문제와 맞물려 있다. 창조성의 문제는 자기 모순의 문제와 이어져 있으며, 자기 모순의 문제는 불완전성의 정리에 뿌리를 두고 있다. 먼저, 창조성의 문제를 생각해 보자. 우리가 창조성을 개념화하여 다루려면, 창조성에 대하여 정의를 내려야 한다. 일단 창조성의 내용을 임의로 정하여, X가 창조성의 내용이라고 가정해 보자. 창

32) 우스개 소리로 '배꼽의 악순환'을 든다. 미켈란젤로가 성화를 그릴 때 아담을 먼저 완성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아담의 배꼽 때문이다. 아담은 하나님을 그대로 닮았기 때문에, 아담에게 배꼽이 있다면, 하나님에게도 배꼽이 있어야 한다. 배꼽은 어머니를 상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배꼽이 있다면, 논리적으로 하나님에게 어머니가 있어야 한다. 다시 그 어머니는 또 다른 어머니를 상징해야 하며, 무한 퇴행이 일어난다.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생각하지도 못한 또 다른 모순이 있다. 하나님이 진흙을 빚어 자신을 닮은 아담을 구워내려고 하였다. 하도 바쁘게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창조하느라고, 아직 거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깜빡 잊어 버렸다(우연히 컴퓨터 창조도 있어 버렸는데, 그렇게 자주 있어 버린다면 우리처럼 나이가 들어서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을까? 불가피하게 하나님에게는 한 가지 선택밖에 없었다. 눈이 낙지 발처럼 밖으로 튀어나와 자신의 몸뚱아리를 바라보아야 했다(민거나 팔거나! 그렇다면, 아담의 눈도 낙지발 눈이 되어야 했던 게 아닌가?) 편리한 낙지발 눈으로도 해결이 안 된 게 있었다. 정작, 그 눈이 바로 자기 자신의 눈을 바라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self-reflection). 논리적으로 보면, 결코 아담의 눈은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자기 모순의 문제인데, 이 형식을 처음으로 밝혀낸 사람이 러셀이며, (12가)로 표현된다. Russell(1908) "Mathematical Logic as Based on the Theory of Types"(Copi and Gould 1967에 재수록됨)을 참고하기 바란다.

조성이 정의될 수 있다면, 그 정의된 대로 나오는 것은 더 이상 창조적인 것이 아니다. 상투성 또는 비 창조성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창조성은 개념상 정의될 수 없는 것이다. '정의될 수 없고 내용이 열려져 있는 것', 그 자체가 창조성이다. 창조성은 정의를 내리면, 자기 모순이 생긴다. 설령, 어떤 방식으로든지 창조성의 정의를 내렸다 해도, 다시 괴델 정리에 따라 그 완벽성은 어디에서도 입증될 수 없다. 이러한 우울한 결론이 우리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내용이다.

언어 사용은 창조성의 하위 개념이다. 상투적인 언어 사용 모습도 있고, 전혀 새로운 언어 사용 모습도 있다. 쉘스키 교수는 자신의 학문을 시작하면서부터 창조성의 화두(話頭)를 들고 나왔고, 스키너를 공격하는 핵심 논거의 하나였다. 창조성을 이해하기 위해, 제 1 장 2절에서 언급한 무한성의 열개를 다시 생각해 보자. 창조성의 상위 개념은 무한성이다. 그런데 무한성은 반복을 통해 일어난다. 반복은 자신의 외부에서도 일어나고, 자신의 내부에서도 일어난다. 이를 언어학에서는 접속과 내포라는 말로 일컫는다. 이는 구조적으로 열려 있다는 점이다. 자연 언어도 그 형식은 반복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접속에 의한 반복을 예로 들면, "철수가 영이를 사랑한다."는 "철수가 영이를 사랑하고, 동수가 순이를 사랑하며, 병수가 진이를 사랑하고,..."와 같다. 자연수처럼 증가하는 엄격한 등위 접속 구조이다. 내포에 의한 반복은 조건이 추가된다. 반드시 상위문 동사가 '생각, 믿음, 추측, 희망' 등과 관련된 '명제 태도' 동사이어야 한다('명제 태도' 동사는 각주 5를 보기 바람). "철수가 영이를 사랑한다."는 다음처럼 무한히 내포 구조를 갖는다(편의상 상위문 주어는 공범주로 실현시킨다). "철수가 영이를 사랑한다고 생각한다고 여긴다고 보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는 않겠다고 하겠다고,..." 창조성은 우선 '구조적 개방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다시, 창조성의 예로 새로운 말이 만들어지

는 것을 들 수 있다. “갓길, 왕따, 도우미, 깜빡이, 돈세탁, 패섬죄, 컴맹, 흠지기, 몰카,...” 등. 이들은 우리 사회의 문화가 달라짐으로써 새롭게 탄생한 단어들이다. 따라서 우리의 언어 사용은 구조적 개방성과 신생어를 근거로 하여 무한하게 열려 있고, 그 무한성의 바다에는 창조성이 있음을 결론지을 수 있다. 언어 사용이 진정 창조성의 구현이라면, 창조성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룰 수 없다. 창조성이 자기 모순의 문제와 불완전성의 정리의 뗏을 빠져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다룰 수 없다면, 그것은 신비에 속한다.

4.3. 언어 사용 : 신비인가?, 해결 가능한 문제인가?

언어 사용이 신비에 속한다는 주장이 옳은 것일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일까? 촘스키 교수는 언어 사용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전혀 제시해 주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 촘스키 교수는 단어와 문장의 사례들을 거론하면서, 의미의 문제와 관련되어 더 복잡하다는 사족을 붙인다. 제 1 장 2절에서 우리는 언어가 상징이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주로 어휘적 중의성(다의성)과 구조적 중의성(다의성)을 다루었다. 촘스키 교수가 자주 거론하는 단어의 예들은 푸슬롭스키(Pustejovsky 1995)에 유형화되어 있는 것들이다.

(10가) 순태가 집을 붉게 칠하고서 집에서 쉰다.

나) 윤태가 빈 보온병을 찾아내고 보온병에 커피를 채웠다.

(10)은 접속문으로 되어 있는데, 선행문과 후행문에 동일한 단어가 들어 있다. 이들이 동일한 형식을 지니지만, 가리키는 곳은 각각 외부(표면) 및 내부(안쪽)를 가리킨다. 이는 자의적으로 아무렇게나 가리켜지는 것

이 아니다. 구성성분을 이루는 핵어 동사에 의해 결정된다.³³⁾ (10가)에서 칠하는 대상은 전형적으로 외부 표면이다. 그러나 쉬는 곳은 내부 공간이다. (10나)에서 보거나 찾아내는 것은 외적인 형태 또는 외부 표면을 가리킨다. 그러나 채워 넣거나 담는 것은 내부 공간이다. 이들은 모두 '용기'(container)라는 부류로 묶이는 사례로서, 그 의미는 어떤 동사가 쓰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이런 과정은 실세계의 외적 대상을 근거로 해서는 확정될 수 없다. 외재주의 입장에서는 이런 측면이 있음을 포착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를 설명하는 길은 오직 우리 언어 능력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 구별 능력에서 찾아져야 한다.

(11가) Jung X-ed Kim to take the pill

(김씨/정씨 그 약 먹다; 정씨는 ...(-도록/-는다고) ...하였다)

나) X=(persuade,... / promised,...)

(설득하다,... / 약속하다,...)

(11가)에는 상위문 동사가 어떤 것으로 채워지느냐에 따라 내포문에서 그 알약을 먹는 주체가 뒤바뀐다. (11나)에서 앞의 후보가 실현되면, 내포문의 주체는 김씨가 된다. 그러나 사선 뒤의 동사가 실현되면 거꾸로 내포문의 주체는 정씨가 된다. 한국어에서는 상위문의 동사뿐만 아니라 내포문의 어미가 '-도록'으로 실현될지, '-는다/-오마'로 실현될지에 따라서 그 알약을 먹는 주체가 달라진다. 이런 사례도 내재주의 관점에서만 설명될 수 있다.

여기서 보인 단어와 문장의 사례들은, 한결같이 해석이 내재주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그렇지만 따로 어떻게 해서 언

33) 푸슬웁스키는 이를 coercion(뜻 고정 짓기)라고 말하고, 담화 의미론에서는 co-text(앞뒤로 이어진 말, 전후 수반 언어 항목)라고 말한다.

어 사용이 이루어지는지를 말해 주지는 않는다. 이를 다음처럼 비유를 써서 묘사할 수 있다. 집을 짓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건축물의 '부재'라고 일컫는 집의 구성 요소를 생각해 보자. 우선 천장(지붕)과 바닥이 있고, 유리 창과 출입문이 있으며, 벽체와 기둥이 있어야 한다. 이들은 기둥과 벽체가 한데 어울려야 하고, 벽에 창과 문이 들어가 있어야 하며, 천장과 바닥은 벽과 기둥을 의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어떤 모양새로 집을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구성 요소들이 아무런 것도 말해 주지 않는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여기까지가 촘스키 교수가 내재주의 언어 철학에 의해서 밝혀 내려는 대목이다. 필자는 이를 언어 사용에 관련된 하부 층위의 논의라고 보며, 촘스키 교수의 생각과는 달리 더 높은 층위의 논의도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비유로 말한다면, 우리는 부재들의 결합을 다루는 단계에만 머물지 않고(언어 사용의 '하부구조'임), 이층집을 지을 것인지, 아니면 초가집을 지을 것인지, 빌딩을 지을 것인지, 피라미드나 우주선 모양의 집을 지을 것인지에 관심을 갖는다(언어 사용의 '상부구조'임).³⁴⁾ 빌딩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모양의 빌딩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는 특정한 범위 내에서 변동할 것이다. 그 모양 설계가 무한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이론화하여 다룰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 다시 말하면,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사례들을 수정하거나 수용하여 그 목표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흔히 이런 과정을 '모방과 변형'이라고 말하며, 약한 의미의 창조성으로 취급할 수 있다. 강한 의미의 창조성은 자기 모순의 명제와 맞서지만, 약한 의미의 창조성은 자기 모순을 피할 수 있다. 이를 다음처럼 형식

34) 언어 사용의 하부구조와 상부구조는 각각 낮은 차원의 신경 그물 연결과 높은 차원의 신경 그물 연결로도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낮고 높은 차원은 우리가 스스로 회고하면서 의식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킨다.

화할 수 있다.

(12가) * [$A \in A$]

나) [$A \subseteq A$]

언어 사용이 (12가)와 같다면, 자기 모순을 피할 수 없다. 이는 강한 의미의 창조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strong version). 그러나 언어 사용이 (12나)와 같다면, 자기 모순은 생겨나지도 않고, 무한 퇴행도 존재하지 않는다(weak version). 이는 약한 의미의 창조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약한 의미의 창조성은 모방과 변형을 통해 이전에 없던 내용들을 조금씩 추가하면서 점차 강한 창조성 쪽으로 나아가는 방식이다.

총체적 언어 접근 또는 의사소통 언어 접근으로 불리는 '언어 교육'에 서는, 대개 기본적인 틀이 학습자들에게 판에 박힌 전형적인 내용(판박이틀)들을 먼저 익히게 하고 나서, 새로운 상황을 스스로 타개해 나가는 방식을 취한다.³⁵⁾ 필자는 이런 태도가 언어 사용을 다루는 온당한 내용이라고 믿는다.

담화 이론에서 담화의 조직 원리를 밝혀 내었다 하더라도, 그 조직 원리는 결코 수학 계산에서처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구현되거나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늘 우리의 의도에 따라 들쭉날쭉하게 마련이다. 예를 들어 담화 조직 방식이 [서론-본론-결론]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자. 이 열개 내부에는 많은 변용 또는 변형들이 들어 있을 것이다. [본론-결론]만으로 제시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서론-결론]만으로도

35) 이를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에서 나온 '언어 교사를 위한 언어교육 총서'(번역본은 2002년 범문사 출간)에서는 'routines'와 'negotiations'라고 표현한다. 앞의 내용은 관습적 표현 방식에 대한 모방이다. 뒤의 내용은 대화 상대와 협동하면서 새롭게 표현 내용의 의미를 전달해 나가는 과정이므로, 변형이면서 약한 의미의 창조라고 할 수 있다.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본론’ 속에서도 다시 [서론-본론-소결론] 형식이 되풀이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변형들을 찾는 일을 언어 교육에서는 흔히 ‘스스로 발견’ 학습 또는 ‘전략’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변형되거나 전형적인 틀을 어그러뜨릴 적에는 우리는 그 의도를 추적해 나가게 된다. 이 과정은 그와이스의 협동 원리에 제시된 해결책을 따라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언어 사용의 문제는 ‘신비’가 아니라,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결을 추구할 수 있는 ‘문제’로 파악되는 것이 옳을 것이다.

5. 마무리하면서

끝으로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는 우스개 소리를 패러디하여 “츄스키 언어학에는 언어가 없다!”는 말로써 마무리를 지어 나가기로 한다. 이는 언어가 인지 기관의 일부로서, 다른 인지 기관과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 다루어짐을 의미한다. 언어를 다루는 전문가들을 나눌 적에, 성글게 ‘언어마저 모르는’ 부류로부터, ‘언어만 아는’ 부류와 ‘언어를 아는’ 부류를 거쳐, ‘언어를 넘어서까지 아는’ 부류로 나눈다면, 내재주의 언어 철학을 실천하는 츄스키 교수는 언어를 뛰어 넘는 데까지 알고 있는 탁월한 언어학자임에 틀림없다. 한두 감각에 바탕 둔 언어관은 ‘언어마저 모르는’ 부류에 해당할 것이다. 상대주의 언어관은 ‘언어만 아는’ 부류에 속한다. 최소주의 연구 계획 이전의 기획은 ‘언어를 아는’ 부류의 것이다. 최소주의 이후는 ‘언어를 넘어서까지 아는’ 부류에 해당될 것이다.

소박하게 필자는 츄스키 교수가 스스로의 이념에 노예가 되는 일을 경계하며 부지런히 자신을 닦아왔기 때문에, 고령의 나이에도 중요한 전환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믿고 있다. 츄스키 교수의 전환이 옳은 방

향이라면, 언어학자는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을 다루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곧, 언어의 어머니를 향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말로 불려져 오고 있다.

(13가) 사고·생각·외식·정신·지능·자유 의지·이해·해석

나) 표상·지향성·인지·과학 형성 능력(science forming faculty)

앞의 것은 춤스키 교수가 기피하는 민간 과학(ethnoscience) 용어이며, 직관에 바탕을 둔 논의를 벗어날 수 없다. 뒤의 것은 어떤 계획이나 이론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특정한 정의에 바탕을 두고 이용된다. 춤스키 교수의 평가에 따르면, (13나)도 아직 만족스럽게 정의된 것은 없다. 이제 우리 정신을 다루는 근본적인 혁명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그 혁명이 만족스러울 때 '정신/두뇌'(mind/brain)라는 표현에서 중간 빗금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춤스키 교수의 기여에 힘입어, 사고가 무엇이고 언어가 무엇인지, 마치 동쪽과 서쪽을 구분하지 못하던 상태에서, 언어가 무엇이며 다른 인지 기관과의 관련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큰 지도를 얻게 되었다. 언어는 진공 속에 갇혀 있는 대상이 아니다. 우리의 정신을 구성하는 실체(두뇌 기관)의 하나로서(언어는 사고의 부분 집합일 뿐임), 이제 언어를 다루는 사람들은 인간 '정신/두뇌'의 문제를 무시하거나 없는 듯이 치부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 이는 비약적 발전의 결과이다.

■ 참고 문헌

김영정(1996), 『심리철학과 인지과학』, 철학과 현실사.

김재권 외 20인(1994), 『수반의 형이상학』, 철학과 현실사.

김지흥(1999), 「어휘의 의미표상에 대한 연구」, 『배달말』 25, 배달말학회, pp.39-77.

_____(2000a), 「동사구와 명사구 기능범주들의 관련성에 대하여」, 『백록어문』16, 제주대 국어교육과 백록어문학회, pp.7-29.

_____(2000b), 「참스키 교수의 내재주의 언어관」, 『배달말』 27, 배달말학회, pp.97-126.

뤼스택(Restak 1984, 김현택 외 번역1993), 『나의 뇌, 뇌의 나』예문지.

_____(Restak 1992, 박소현 번역 1996), 『마인드』, 이론과 실천.

윤명로(1987), 『현상학과 현대철학』, 문학과 지성사.

이정모 편(1996), 『인지 심리학의 제 문제— 인지과학적 연관』, 성원사.

이정모 외 편(1998), 『인지 심리학의 제 문제— 언어와 인지』, 학지사.

취취랜드(Churchland 1988, 석봉래 번역 1992), 『물질과 의식』, 서광사.

Block, Ned et al. eds.(1997), *The Nature of Consciousness*, MIT Press.

Bowerman, M. and S.C. Levinson eds.(2001), *Language Acquisition and Conceptual Development*, Cambridge Univ. Press.

Chomsky, N.(1993a), *Mental Construction and Social Reality*,
E.Reuland et al eds.(1993), *Knowledge and Language* vol. # 1,
Kluwer Publisher, pp.29-58.

_____(1993b), *Language and Thought*, Moyer Bell Publisher.

_____(1995), *Minimalist Program*, MIT Press.

_____(1997), *Language and Mind : Current Thoughts on Ancient Problems*, *Pesquisa Lingüística* vol. # 3(4), Universidade de Brasília.

_____(2000a), *The Architecture of Language*, Oxford Univ. Press.

_____(2000b), *New Horizons in the Study of Language and Mind*,

- Cambridge Univ. Press.
- Grice, P.(1989), *Studies in the Way of Words*, Harvard Univ. Press.
- Jackendoff, R.(2002), *Foundations of Language*, Oxford Univ. Press.
- Margolis E. and S. Laurence eds.(2000), *Concepts—Core Readings*, MIT Press.
- Rosch, E.(1988), Coherence and Categorization : A Historical View, F. Kessel ed. *The Development of Language and Language Researchers*, Lawrence Erlbaum, pp. 374-92.
- Schiffrin, D., D. Tannen, and H.E. Hamilton eds.(2001), *The Handbook of Discourse Analysis*, Blackwell Publisher.
- Smith, E. and D.L. Medin(1981), *Categories and Concepts*, Harvard Univ. Press.
- Townsend, D.J. and T.G. Bever(2001), *Sentence Comprehension—The Integration of Habit and Rules*, MIT Press.

■ ABSTRACT

'Internalist' Philosophy of Language

Kim Jeehong

It is surprising to note the recent return of a trend towards a monistic idealism of unification in the realm of linguistics. In the Choson dynasty of Korea (some three or four hundred years ago), there had been some serious debates on whether the ultimate being was the Ideal Principle or the Material Substance.

Chomsky, advocating an Internalist stance, assumes that ultimately there may be a way to unify abstract representations and neural connections in order to explain what language is, and how it works. Further, he supposes that the linguistic organ in our brain should reveal some aspects of other related cognitive organs of the brain (their structures and functions as well). The interface levels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language faculty: They restrict the legibility conditions (how language representation from a lexicon maps into both the sensorimotor system and the conceptual-intentional system). The idea of 'referential semantics' is denied, simply because it does not deal with 'cognizer' or the representational nature of our brain.

What Chomsky strongly claims is the mystery of language use

in which he seems to adopt the concept of 'infinite regression'. He retains a strong version of creativity and continues to regard language use as a mystery. On the other hand, if one favors H. P. Grice's weak version of creativity—in which he denies any regression in language use by postulating 'self-reflexive intentions' or a type of self-monitoring device and explains creativity in language use as 'following or flouting conventions'—we may consider that creativity can develop from simple imitation or routines, followed by personal transformations or negotiations in the early stages, to the ultimate, mysterious kind of creativity to which Chomsky refers.

■ 필자 : 경상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